

AI 시대, 인간이 잉여? “‘하나님 형상’ 성경적 가르침 필요”

곽혜원·김기석 교수, 10일 한복협 월례회서 발제

한국복음주의협의회(회장 임석순 목사, 이하 한복협)가 10일 서울 강남구 소재 서울영동교회(담임 정현구 목사)에서 ‘AI와 기독교윤리’라는 주제로 11월 월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회에선 김윤택 교수(한복협 신학위원장, 백석대 기독교전문대학원장)의 사회로 ▲곽혜원 교수(경가대, 21세기 교회와신학포럼 대표)가 4차 산업혁명과 팬데믹이 합세한 위험 시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김기석 교수(한동대 전 산전자공학가) ‘인공지능 로봇의 본질과 인식의 갭(Gap)에 대한 이해의 단서, ‘여깁에 대하여-기독교 윤리의 기존 설정하기’라는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 21세기 기독교, 위기에 잘 대처하려면 인간 존엄성 보호에 앞장서야

먼저, 곽혜원 교수는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팬데믹의 합작으로 21세기는 문명의 대전환 시대에 진입할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한 뉴노멀의 등장은 4차 산업이라는 기술혁명의 도구와 함께 우리의 삶을 바꿀 것임은 너무나 명약관화하다”며 “4차 산업혁명의 기술 발전이 점진적으로 변화해 준 가운데 코로나19라는 촉매제가 가세함으로써, 변화의 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 팬데믹이 자주 출몰할

것이고, 4차 산업혁명의 여파로 인해 우리는 이전에 살아보지 못했던 새로운 환경에서 살게 될 것이며, 정치·경제·사회·문화·종교 등 많은 영역이 이미 팬데믹으로 인해 급변함으로써,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며 “그런데 향후 몇 년 동안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변화될지 정확히 알 수 없기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직 상세한 매뉴얼도 주어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21세기 기독교는 이 시대가 처한 현실을 냉철하게 직시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과 팬데믹 위험 시대에 치밀하게 대비해야 할 시대적 과제를 부여 받았다”며 “팬데믹이 합세한 위기 국면에 다음 세대를 치밀하게 준비시키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것이다. 위험 시대가 도래한 21세기는 누가 더 위험을 피해 가느냐보다는, 누가 위험에 잘 대비하고 극복하느냐에 달려 있을 것”이라고 했다.

곽 교수는 “4차 산업혁명이 인류를 비인간화하여 우리 삶에 의미를 주는 전통적 가치를 위태롭게 할지, 아니면 공동운명체 의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공동의 윤리의식의 세계로 인류의 수준을 높이는 데 4차 산업혁명을 활용할 수 있을지는 공존·상생, 연대·협력하려는 우리 모두의

노력 여하에 달려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사실상 기독교가 시대와 소통을 할 때에 계속해서 영향력 있는 종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에 적극적으로 반응할 필요가 있는 것”이라며 “21세기 기독교는 AI를 위시하여 과학 기술의 발전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사회와 함께 호흡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4차 산업혁명과 팬데믹 여파로 인류 역사에서 가장 막대한 규모로 인간 존엄성이 훼손당하는 상황에 직면하여 21세기 기독교가 위기에 잘 대처하려면 인간 존엄성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인간 존엄성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고 했다.

곽혜원 교수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창 1:27) 존엄한 존재”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의 모양을 체화하고 영혼을 지닌 존재이며 미래적 잠재성을 지니고 다른 유기체와는 구별된 특별한 존재로서 문화 위임을 수행할 책임적 존재”라고 했다.

그러나 “AI가 인간보다 대부분의 부분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일 경우, 인간이 하던 일의 상당수를 AI가 대체함으로써, 인간은 소위 ‘잉여 인간’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과학은 학문적 특성상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어떤 논리적 주장도



곽혜원 교수



김기석 교수

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이 부분은 21세기 기독교계에서 적극적으로 다뤄야 할 책임이 있다”며 “우리의 인간성이야말로 우리의 영원한 과제이며 앞으로도 그래야만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 이유는 인간성은 우리가 보호하고 지켜려고 애써야 할 무엇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 인공지능 시대의 윤리기준 두 가지

이어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기석 교수는 “로봇에 대한 기독교 윤리의 첫 출발은 로봇의 정체는 반도체 회로와 코딩일 뿐이라는 사실”이라며 “로봇의 정체는 반도체 회로와 코딩일 뿐이지만, 그것을 그렇지 않다고 사람들이 여길 수 있는 수준을 가능한 한 낮게 만드는 것이 일차적인 윤리의 첫 번째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사도바울의 제사음식에 대한 접근 방법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

요한 단서를 마련해준다”며 “제사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혹 실족할 형제가 있을 수 있는 것처럼, 로봇개를 보고 그 로봇개가 정말 살아있는 로봇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배려, 이것이 인공지능 시대의 윤리를 논할 때 또 하나의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인공지능 로봇을 만들 때, 잘못 형성된 인간의 여김의 가능성을 최소화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가능하다면 사람 모양을 한 로봇을 만들지 않아야 하며, 많은 서비스 끝에는 항상 단지 인공지능 로봇임을 스스로 밝힐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어느 수준 이상으로 정서적 연대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면, 그 선을 넘어서지 않도록 주의하거나, 또 주변에 경고를 던질 수 있어야 한다”며 “더 나아가 사람을 신체적으로 해할 가능성은 철저해 배제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이것이 또 하나의 인공지능 시대의 윤리적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로봇은 어디까지나 반도체 회로일 뿐이고 코딩일 뿐이며, 또한 미생물일 뿐이다. 그것을 인공지능 로봇에 대한 기독교 윤리적 기준의 맨 왼쪽이라면, 그 가족들과 정서적 연대를 나누며 사랑을 나누고 인격적인 교류를 나눠 왔기에, 그 가족들은 인공지능 로봇을 또 하나의

가족으로 여기고 살아옴으로, 그 로봇과 헤어질 때의 슬픔에 대하여 우리는 인간의 마음에 형성된 정서적 연대를 무시하지 않고 함께 슬픔을 나누는 것, 이것이 인공지능 시대에 생각할 수 있는 기독교 윤리의 맨 오른쪽”이라고 했다.

한편, 발표회에 앞서 기도회에서 최이우 목사(한복협 명예회장, 종교교회 원로, Ministry Mentoring Service 대표)는 “다시 근원으로(고전 2:1-5)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최牧사는 “작년 챗GPT의 출현 이후 인공지능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가운데 ‘프린티어 AI’라고 불리는 미래의 고성능 AI가 실제로 탄생하면 AI가 스스로 생각하고 추론하면서 인간의 통제를 벗어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다”며 “고도로 지능화된 AI가 전장의 판도를 마음대로 바꾸거나 테러를 일으키는 시나리오도 가능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런 시대에 우리 기독교회는 어떤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하는가, 우리의 믿음과 교회는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과연 살아남을 수 있는가, 기독교는 무엇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라며 “고린도 전도에서 바울의 선언은 새로운 전략이 아닌 본질로의 회귀였다. ‘오직 예수·오직 십자가, 다시 근본으로 돌아가겠다’는 선언이었다”고 했다. 장지동 기자

한국교회총연합 인선위, 차기 대표회장에 장종현 목사 선임



한교총 제6-7차 상임회장회의에서 상임회장단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노형구 기자

공동대표회장은 김의식·오정호·이철 목사… 상임회장회의 통과
이영훈 대표회장 “기관 통합의 묶은 다음 회장단에”

기했다.

노형구 기자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이영훈 목사, 이하 한교총) 임원인선위원회(위원장 권순웅 목사, 이하 인선위)가 제7대 인선 대표회장으로 장종현 목사(예장 백석 총회장)를 선임했다.

인선위는 지난 10일 서울 한국기독교회관 한교총 사무실에서 열린 제6-7차 상임회장회의에 이를 보고했다. 이와 함께 차기 공동대표회장으로는 김의식 목사(예장 통합 총회장), 오정호 목사(예장 합동 총회장), 이철 감독회장(기광)을 선임했다고 보고했다.

상임회장회의는 이 같은 인선위 보고를 가결했다. 이에 따라 해당 안건은 오는 12월 7일 서울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릴 한교총 정기총회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한교총 임원선임규정에 따르면 대표회장의 선출은 상임회장회의에서 전격해 총회에서 추대한다.

한교총 공동대표회장은 한교총 회원교단을 규모별로 나눈 가나다라의 각 군에서 1명씩 선정한다. 그리고 이들중 1인을 대표회장으로 선임한다.

한편, 이날 한교총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는 “한교총과 한기총 통합의 길은 한기총 내 이단성 문제가 해결되면 통합을 추진하기로 결의한 지난 상임회장회의의 보고를 이번 총회에 상정한다”며 “기관 통합의 묶은 다음 회장단에 넘긴다”고 이야

故 박상은 장로 샘병
원에서 천국환승예배 >> 3면

정전 70주년 UN 참전
국 자녀 육사 초청 >> 5면

김준희 교수 “음악을
한다는 것” >> 22면

사공예정사

대우건설

- 1 중도금 무이자
- 2 송파 랜드마크
- 3 청약통장 無
- 4 35층 상향예정

Seochon

8 9

리버레이크 송파 아파트
RIVER LAKE SONGPA

1 석촌역 10초, 잠실역 도보역세권

2 롯데타워, 롯데백화점, 가락시장 생활인프라

3 잠실종합운동장, MCE 복합개발

4 현대 GBC, 강남권 송파 미래가치 핵심임지

5 석촌호수, 올림픽공원, 한강시민공원 생활환경

6 한강조망, 신강남의 중심

7 주상복합 고품격 커뮤니티

8 수려한 단지외관, 친환경 혁신설계

40㎡ | 55㎡
아파트 총 380세대

문의 전화 02)588-1800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을 위한 광고

조합원 모집 신고수리일 2021. 11. 23.

대지 전체 면적비율 63.7% 사용권원 확보(사유지면적 4,259.80㎡ 대비 확보면적 2,717.76㎡ 비율 63.7%)

※ 조합원 자격기준 ■ 서울·경기·인천 6개월 이상 거주한 세대주 ■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이하 1세대 소유자 ■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기준 세대주(투기과열지구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로부터 1년전의 날로 한다.) ※ 조합주택의 공급방식 ■ 주택의 규모는 조합의 사업계획 및 사업계획승인의 내용에 따라 평형별로 확정한다. ■ 조합에 제출한 가입신청서에 신청한 평형 또는 남부한 부담금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 조합원의 등·호수 결정은 사업계획승인 후 조합총회 결의에 따라 결정한다. ■ 조합원모집 지수 또는 등·호수에 따른 분양가격(조합원 부담금)에 차등을 둘 수 있으며, 총회 또는 이사회에 결의에 따라 분양가격(조합원 부담금) 산정의 방법으로 정한다. ■ 건축관련 법규에 따라 인·허가 진행과정에서 관련법규와 허가관청의 조례 등으로 불가피하게 설계변경 부분이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기존 가입한 조합원의 등·호수·평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 예정되는 세대배치 압무일체의 관할을 압무대행사에 위임한다. ※ 상시 조감도는 각종 개발 계획(지구단위계획수립 등) 및 인·허가 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조합원부담금은 추후 관련 법규 개정, 사업 인허가, 설계변경, 시공사 변경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추가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감 임박

송파 5억대 신규 아파트

석촌역 10초!!

한교봉, 모로코 지진피해지역에서 이재민 긴급구호 활동

“사랑의 빛, 복음과 희망의 빛으로 झा아야”

한국교회봉사단(총재 김삼환 목사, 이사장 오정현 목사, 대표단장 김태영 목사, 이하 한교봉)이 지난 9월 지진이 발생한 모로코에서 현지 전문사역 관계자를 통해 이재민 겨울나기 구호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한교봉은 “이번 지진은 마라케시 남부 산악지대(아틀라스)에서 일어났다”며 “산악지대 마을 특성상 피해지역이 흩어져 있고 접근 가능한 도로가 1차로이며 낙석의 위험이 큰 지역으로 접근이 쉽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특별히 이 지역은 알아우즈 지역으로서 이번 지진으로 인해 건물 100%가 무너지거나 손상되어 생존 주민이 모두 이재민이 된 지역”이라며 “외부 기관의 접근의 어려움과 동시에 지원이 여전히 부족한 상태로 식료품, 텐트, 담요, 기초의약

품, 의료서비스 등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모로코는 행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현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현지 의사인 네이마의 도움으로 잠정적 지역선정을 먼저 했고, 그런 뒤 지역 공무원과 지역 대표와의 여러 차례 유선통화 및 직접 면담을 통해 최종 지역선정과 필요한 물품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렇게 선정된 두 곳은 레가르가와 트니스키다. 먼저 레가르에 대해 한교봉은 “마라케쉬에서 약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으로 진앙지에서 멀리 않아 피해가 많은 지역”이라며 “특히 집이 무너진 사람들이 모여서 텐트촌을 형성하여 살고 있는 상황으로, 초기에는 외부 지원이 많았으나 현재는 지원이 부족하고 겨울이 시작되면 서 화장실, 텐트 등 필요한 것이 많은 곳



모로코 지진피해지역의 모습 ©한교봉

이다. 이곳 주민들도 어려운 가운데서 새롭게 공동체를 이루고자 협력하고 있다”고 했다.

또 “트니스키는 마라케쉬에서 약 2시간 정도 떨어진 산악지대에 있는 곳으로 진앙이 어려운 곳”이라며 “마을 전체가 무너져서 마을 근처에 있는 빈 공간에 텐트촌

을 이루고 생활하고 있다. 공동체성이 존재하나 워낙 접근이 어려워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요구되는 곳”이라고 밝혔다.

한교봉은 이들 지역 100가정 400명을 대상으로 긴급구호물품(식품, 의복, 쉼터 키트(텐트), 이동화장실, 기초약품)과 이재민 지역의 복구활동(동계지원, 아동 심리

지원, 교육지원, 인프라지원, 의료지원)에 필요한 후원금을 1차 지원했으며, 추수감사주일 이후 2차 지원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한교봉은 오는 14일 오후 신안산 대학 분관 2층 세미나실에서 경기 국제의료협회를 비롯한 4개의 NGO단체와 글로벌 공공보건 의료지원을 위한 MOU 체결식을 갖는다. 글로벌 공공보건 의료지원은 우크라이나에 한국형 보건소를 보급하는 것으로서 2024년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설치 지원 대상지역 선정을 위해 현지 선교사들과 협력 중에 있다.

더불어 한교봉 물류센터(신안산대학)에 한국교회와 성도들, 후원기업과 단체들이 지원한 구호물품을 보관중인데, 그 중 컨테이너 4대 분량(튀르키예 1대, 우크라이나 3대)을 지원하는 행사도 진행한다.

그동안 한교봉과 협력기관은 지난 10월 기준으로 지난 1년 동안 우크라이나 전

쟁 난민 및 재난지역 이재민 총 676,567명에게 약 200억 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했는데, 물품지원 151,667명(45억3천만 원), 음식지원 12,800명(1억2백4십만 원), 약품지원 511,000명(15억3천만 원), 주거지원 4,000명(1억2천만 원)이다.

한교봉 감철훈 사무총장은 “모로코 군인 8명이 70년 전 6.25전쟁 당시 프랑스 군복을 입고 UN군으로 자발적으로 한국전쟁에 참전했다”며 “그들에게 애국의 빛을 갠기 위해 일회성이 아닌 한국교회의 꾸준한 관심과 지원을 통해 자진피해지역에 하나님의 사랑과 한국교회의 사랑과 섬김을 전함으로 이재민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제공하고 싶다”고 전했다.

김 사무총장은 “지금까지 힘을 모아서 협력해주신 한국교회와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한교봉이 더 열심히 섬길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와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김진영 기자

기장 동성애대책위 “‘제7문서’ 수정안서 각주 ‘성적인 쟁점’도 삭제해야”

최근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 정기실행위원회(실행위)에서 성적지향, 성평등을 뺀 ‘제7문서’ 수정안을 결의한 가운데, 기장 소속 목사 176명과 장로 231명으로 구성된 동성애·동성혼반대대책위원회(위

원장 김창환 목사)는 우려를 표했다.

이 단체는 같은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제7문서’ 수정안에서) 성평등을 당연히 삭제하고 또한 ‘성적인 쟁점’이 공동의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첨가(각주)

도 삭제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제7문서 수정안’은 지난 9월 기장 제108회 총회에서 성적지향, 성평등이 들어간 ‘제7문서’ 채택을 두고 격론이 일어 총회 임원회가 본안을 수정해 지난 9월 실행

행위에 상정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수정안에 따르면, 성적지향과 성평등이 삭제된 대신 ‘제108회 총회에서 성적지향·성평등이라는 단어가 논쟁이 되어 성적인 쟁점으로 바꾸었다’는 각주가 첨가돼 있다.

이 단체는 “지적인 부분만 삭제하면 간단하다. 그런데 ‘성적인 쟁점’ 사족을 붙였다. 성적인 쟁점이란 ‘자신의 성적인 견해가 옳다고 서로 다투는 중심 사항’

이라는 말”이라며 “이것은 다투는 문제가 아니며 성경에 위배되는 문제이다. 따라서 이 용어(성적인 쟁점)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지적인 부분만 삭제하는 것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실행위원회에 올린 ‘수정안’이 격론 끝에 ‘임원회 안’대로 결의된 것은 심히 우려스럽다”며 “차기 제109회 총회 실행위원회의 보고 때에 ‘각주’ 부문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해서 삭제를 시킨

다음에 채택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동성애 지지그룹에서는 본문에서 삭제되었지만 ‘성평등’과 ‘성적 지향’ 용어를 각주에 명시해 역사화·현재화했다는 점에서 절반의 실패이자 절반의 성공이라고 말한다”고 했다.

이 단체는 “우리는 성경에 반하는 ‘동성애, 동성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적 은총과 교회의 거룩성 그리고 영혼 구원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임을 천명하고 영혼 구원과 거룩한 주님의 몸 된 교회의 존립을 보장하는 거룩한 교단을 만들어 가는 일에 앞장설 것을 천명한다”고 했다. 노형구 기자

한성연, 제14회 목회자 친선 체육대회 개최

한국성결교회연합회(한성연, 대표회장 임석웅 목사)가 제14회 목회자 친선 체육대회를 최근 충북 제천 봉양건강축구장에서 개최했다. 한성연 회원교단 목회자 70여 명이 참여한 이날 행사는 축구와 족구 2개 종목을 리그전으로 진행했다.

기성 문창국 총무의 사회로 시작한 개회예배에서 한성연 문화체육분과위 박성균 목사의 기도, 나사렛성결교회 윤문기 감독이 ‘그중애?’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그는 “목회를 위해서는 영정지도력도 필요하지만 체력도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건강한 육체를 통해 영육 간에 강한 목회자들이 되기를 바라며 안전하게 경기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또 축사를 맡은 예성 이강준 총무도 “성결의 이름 아래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 스포



체육대회 현장의 모습. ©예성 총회

츠를 통해 연합 의지를 다지고 깊은 교제를 나누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대회는 무제한 선수교제와 상금·상패도 수여하지 않는 조건으로 진행됐다. 마지막 폐회예배는 예성 이강준 총무

의 사회로 나성 이용주 총무가 ‘연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기성 선교스 포츠연합회 회장 이춘오 목사의 폐회선언으로 이날 일정은 모두 마무리됐다.

노형구 기자

한반도 평화통일 등 위한 대한민국미래희망재단 창립

창립 감사예배...

이사장은 이영훈 목사

한반도 평화통일과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대한민국미래희망재단(이사장 이영훈 목사)이 10일 서울 CCMM빌딩에서 창립 감사예배를 드렸다.

재단 측은 창립 취지에 대해 “지금 한국 사회는 크게 세 가지의 위기에 놓여 있다”며 △남북 분단의 현실에서 오는 불안감 △한국 사회 내 정치, 경제, 지역, 세대 간 갈등의 심화 △아려한 문제 의식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을 꼽았다.

재단 측은 “지금 변하지 않으면 내일의 희망이 없다”며 △한국 사회를 희망의 미래로 이끌어 갈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싱크 탱크(Think Tank)와 △남북 간 평화로운 문화, 경제적 교류를 위한 교두보로서의 역할 등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사장인 이영훈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는 “대한민국미래희망재단은 대한민국의 평화와 지속가능한 성장, 그 미



대한민국미래희망재단 이사과 고문으로 위촉된 이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진영 기자

래를 위해 연대하고 행동하는 재단”이라며 “대한민국의 비전과 꿈에 모순되는 현실을 올바르게 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불안과 불만, 두려움으로 가득한 현실을 예측 가능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로 만드는 일은 지금 바로 해야만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날 영상으로 축하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재단은 대한민국의 평화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면서 우리 사회를 희망의 미래로 이끌기 위해 연대하고 행동하는 단체라고 들었다”며 “재단이 우리 모두의 염원인 한반도 평화통일 실현하

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해훈 전 국회의원은 축하사에서 “인간이 물을 주어도 자라게 하시고 결실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입니다. 한반도의 통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며 “대한민국미래희망재단이 창립하지만 결국 통일과 저출산 극복의 기쁨을 주실 분도 하나님”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창립 감사예배에 앞서 ‘독일 통일에서 배우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창립기념강연을 했다. 김진영 기자

금융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Shinhan

좋아하는 책들을 마음껏 볼 수 있어 행복해요

아름스 모여라!

535개 아름스 도서관으로!

#신한카드 #아름스도서관 #꿈 #무한가능성 #상상력 #너희들이미래다 #금융으로일상을아름게

책과 함께 꿈꾸며 성장하는
아이들 모두가 No.1입니다

신한카드가 세상의 모든
작은 No.1을 응원합니다

신한카드
아름스도서관

아동·청소년이 마음껏 책을 읽고 자신의 꿈과 상상력을 키워가도록 국내외 총 535개의 도서관을 개관하였으며, 디지털 콘텐츠를 자유롭게 경험하도록 디지털 기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World EXPO 2030 |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신한금융그룹이 응원합니다

1Lead by 신한카드

“故 박상은 장로님 미션 이어받아 복음 더욱 증거하자”

11일 안양샘병원에서 고인 천국환송예배 드려져
이재훈 목사 “‘미션원장’ 직함 잘 어울리셨던 분
영원한 나라에 부활 생명으로 다시 깨어나실 것
의료선교사 등 장로님과 같은 일꾼 더 많아지길”

故 박상은 장로 천국환송(발인)예배가 11일 아침 안양샘병원 샘누리홀에서 드려졌다.

김성은 목사(안양샘병원 원목실장)가 집례한 예배에선 박문현 한방원장이 기도했고, 성경봉독과 안양샘병원 직원들의 조가가 있는 뒤 이재훈 목사(은누리교회 담임)가 '사망을 이긴 승리자'(고전 15:51-58)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목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하는 이를 갑작스럽게 데려가심은 우리가 그를 생각할 때마다 그 분이 가 계신 천국을 더 깊이 바라보게 하시기 위함”이라며 “박 장로님이 이처럼 홀연히 우리를 떠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천국을 더 깊이 바라보도록 하시기 위함인 줄 믿는다”고 했다.

이목사는 “장기려 박사님의 뒤를 잇는 의사로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그리스

도인으로서 박 장로님은 미션원장이라는 직함이 너무나 잘 어울리셨던 분”이라며 “장로님의 삶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었다”고 했다.

그는 “우리가 죽음을 통한 잠에 들어갈 때, 죽음의 독침이 가져오는 영향력 아래 쓰러지는 것 같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들의 영혼을 거두시며 새 옷을 입히실 것”이라며 “우리는 이 땅에서 잠들지만 하늘에서 깨어나게 될 줄 믿는다. 박 장로님은 이 땅에서 잠드셨지만 영원한 나라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깨어나실 것”이라고 했다.

이목사는 “예수님은 죽음으로 모든 죽음을 삼키시고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영원한 몸을 덧입게 하셨다”며 “장로님은 이 복음을 체험하셨고, 많은 이들에게 나누셨다. 그리고 아프리카 곳곳에 이 복음을 증거하셨다”고 했다.



故 박상은 장로 천국환송(발인)예배가 11일 아침 안양샘병원 샘누리홀에서 드려졌다. ©김진영 기자

이목사는 “박 장로님은 선한 그리스도인이자 하나님의 사람이셨다. 그렇게 귀한 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며 “우리는 사망의 권세에 눌려 절망 가운데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바라보고 슬픔 가운데서도 천국의 소망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목사는 “박 장로님께서 장기려 박사님의 미션을 이어받으셨듯이 우리도 박 장로님의 미션을 이어받아야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선교사로 살아가는 의료인들이 더 많아지고, 장로님과 같은 일꾼이

더 많아질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그는 “박 장로님은 이 자리에 죽음의 패배자로 계신 것이 아니다. 사망을 이긴 승리자로 계신다”며 “세상을 떠나신 장로님의 발걸음을 우리가 이어가면서 더욱 주 안에서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후 참석자들이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를 찬송했고, 강경민 목사(일산은혜교회 원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쳤다. 이어 고인에 대한 약력소개가 있었고, 고인

의 장남인 박지현 씨가 유족을 대표해 인사했다.

박 씨는 “아버지의 미션원장이라는 직함에 대해 생각해봤다. 이 직함 속에서 아버지의 향기로운 삶을 추억할 수 있다”며 “아버지는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미션원장이셨다. 하나님의 미션을 위해 부름받으셔서 가족들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을 한 뜻 아래 하나 되도록 모으곤 하셨다. 본인 스스로 모범을 보이셔서 온 힘을 미션을 위해 쏟기를 매일 아침 다짐하셨다”고 했다.

그는 “아버지께서는 낮은 자리에 있는 이들, 소외된 자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셨다”며 “교회와 병원, 각 단체의 모든 분들에게 유족 대표로 깊은 감사를 전한다. 여러분 덕분에 아버지의 빛나는 삶이 더욱 빛날 수 있었다. 아버지의 편한 안식을 위해 기도해주시고 아버지의 사역을 이어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한편, 안양샘병원 미션원장이었던 박 장로는 지난 5일, 베트남 다낭에서 의료 선교활동을 하던 중 65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생전 고인은 국내 의료선교계의 지도자 중 한 명이었다. 기독교의 표상

인 故 장기려 박사의 제자이기도 하다.

고려대학교를 졸업하고 고신대학원에서 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고신대 의대 내과 교수, 미국 미주리주립대와 세인트루이스의대 교환 교수, 생명윤리학회 부회장, 대한기독교병원협회 회장, 안양샘병원 원장,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소장을 역임했다.

2014년 자랑스러운 전문인선교대상 대상을 수상했고, 2015년 2월부터 제4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2022년에는 대한병원협회와 중외제약이 수여하는 제30회 JW중외박애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아울러 ‘샘글로벌봉사단’을 조직해 소외된 이웃을 찾아가는 진료봉사와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무료 주말진료를 시행했다. 아프리카미제단을 설립해 지구촌 취약지역 의료봉사에 앞장섰다. 행동하는 프로라이프 공동대표도 역임했던 박 원장은 생전 낙태에 반대하며 생명존중활동을 펼쳤다.

고인의 유해는 경기도 양평 하이패밀리에 수목장(樹木葬)으로 안치된다.

김진영 기자

난민·이주에 대한 신학적 고찰

한국기독교철학회, 최근 전주대 HK+연구단과 공동 학술대회 개최

한국기독교철학회(대표 김종걸 회장)가 전주대 HK+연구단과 공동으로 최근 전북 전주시 소재 전주대학교 대학본관에서 ‘경계 밖의 인간 무리’라는 주제로 2023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온오프라인 동시에 진행됐다.

오유석 박사(공주교대)의 사회로, ‘경계 안과 밖의 디아스포라’라는 소주제로 진행된 학술대회는 △서해정 박사(글로벌언약신학교)가 ‘하나님의 경계, 인간의 경계 -경계 밖 사람들에 대한 신학적인류학적 고찰’ △이대승 박사(전주대)가 ‘20세기 초 재중(在中) 한인 전병훈의 이상사회론’ △손영창 박사(한국기술대)가 ‘타자성과 환대의 의미’ △김기현 박사(침신대)가 ‘디아스포라, 숙명에서 사명’이라는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이주와 난민, 종말론적인 소망으로 이어져

서해정 박사는 “세계인권 선언 13조에는 모든 사람은 자국 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하고 거주할 자유를 가지며, 자국을 포함해 어떤 나라를 떠나든지 자국으로 돌

아올 권리를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2000년 12월 UN이 6월 20일을 난민의 날(World Refugee Day)로 정했고, 12월 18일은 ‘이주의 날(International Migrants Day)’로 정했다. 인간은 ‘이동’의 자유와 ‘이주’의 자유를 갖는다”고 했다.

서 박사는 “오늘날 대두되고 있는 난민의 문제는 사회, 정치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철학·신학적인 측면에서 고찰되어야 하는 중대사안”이라며 “이주자나 난민은 자의든 타의에 의해 자신의 생활 터전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자들이다. 소위 자신의 경계선을 떠나, 다른 경계 안으로 들어가는 자들이다. 소위, 장기이민 단기이민 어딘가에 ‘정착하기 위해 경계 밖으로 떠나는 사람들’이라고 했다.

이어 “창조주의 입장에서는 경계는 없다. 모든 피조세계가 모두 그에게 속했기 때문”이라며 “그 피조세계를 인간에게 위임하시고 세상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명령하셨다. 인간은 이동과 이주의 욕구를 통해 세계 전역에 널리 퍼져 나갔다”고 했다.

또한 “인간은 끊임없이 경계의 지계석을 넘고 국경을 넘는다. 생존을 위한 난민의 이동이든,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이주이든 인간은 경계 안 혹은 경계 밖에서 타자를 만난다. 새로운 인종을 만나고 새로운 문화를 경험한다”며 “결국 이러한 움직임을 지닌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게 하며, 거대한 인류공동체임을 깨닫게 된다”고 덧붙였다.

서해정 박사는 “인간은 ‘정착하기 위해 떠난다’. 더 나은 삶을 위한 이주민의 이동이든, 생존을 위한 난민의 이동이든, 모두가 ‘정착’을 원하는 본능이 있다”며 “그러나 인류의 이러한 정착을 위한 이동과 이주는 근본적인 본향에 이르러서야 마침내 만족을 누리며, 안식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주와 난민은 종말론적인 소망으로 이어진다. 궁극적인 피난처, 궁극적인 양식, 궁극적인 행복은 저 세상에서 얻게 될 것”이라며 “사도 바울이 말대로 그리스도인은 하늘의 시민권자라면, 사랑은 누구나 잠시 이 세상의 땅을 지나가는 나그네, 게르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늘 상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재중(在中) 한인 전병훈의 이상사회론이 지닌 의미

이어 두 번째로 발제한 이대승 박사는 “전병훈은 구한 말에서 일제강점기 기간 조선과 중국 북경에서 활동한 인물”이라며 “그는 1913년 북경으로 이주하여 ‘정신철학사’를 건립해 운영하면서 중국 북양정부 및 고국의 인사들과 교류했다. 그리고 1920년에 동서고금의 사유를 융합하여 ‘정신철학통편(精神哲學通編)’을 편찬했다”고 했다.

이어 “전병훈은 「정신철학통편」, 「정치철학」 등에서 동서의 정치철학을 논하면서 세계가 장차 통일되어 영구평화를 이루는 이상사회가 도래할 것임을 확신하며, 「예언」의 대동론과 칸트의 영구평화론에 바탕하여 도래할 이상사회에 쓰일 헌법으로서 세계공화정부헌법을 제시한다”며 “그의 이상사회론은 동서고금의 정치철학 요소를 조제한 것으로 중국 근대 이상사회론과 일정한 차이를 보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전병훈은 국가와 민족의 경계, 인종과 문화권의 경계를 넘어 세계인이 함께 하는 공존과 평화, 대동의 미래 세계를 상상하며, 동서양과 만나고 동서양의 학술과 조우하면서 새로운 문명의 문법을 설계했다”며 “또한 ‘조선과 중화’ 전통



한국기독교철학회 2023 공동학술대회 주요 인사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기독교철학회

과 근대 ‘동양과 서양’이라는 경계를 허물고, 동서고금의 사유를 ‘조제(調劑)’하여 ‘경계 너머’의 사유를 기획했다는 점에서 오늘날에도 중요한 철학적 의의를 지닌다”고 했다.

◆디아스포라적 신자와 교회, 숙명이지만 동시에 사명

마지막으로 발제한 김기현 박사는 “이방 땅에서 아웨의 노래를 부르는 법이 예레미야가 바벨론 포로들에게 보낸 편지(렘 29장)라고 생각한다”며 “그리고 이 편지가 이후의 유배민들과 디아스포라의 삶과 신앙을 규정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리고 이어 “이 노래와 편지가 함축하는 것은 탈 국가, 탈 성전, 탈 계서적 상황에서 성도와 신도의 공동체로 존재하는 법을 알려준다”고 했다.

김 박사는 “우리의 남은 과제는 첫째, 예레미야의 전환으로 구약 성경을 읽어내는 작업이며, 둘째는 더 나아가 신약의 예수와 바울, 공동 서신도 동일한 방식으로 읽는 것”이라며 “그리고 1세기와 16세기의 기독교회와 한국교회를 읽는 작업”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를 통해 바벨론 포로기로 진입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그것을 우리의 불순종에 대한 아웨의 심판이지만, 동시에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 새로 태어나기 위해 반드시 겪어야 할 과정을 이해해야 한다”며 “디아스포라적 신자와 교회가 숙명이지만 동시에 사명임을 재확인하게 된다”고 했다.

한편, 앞서 김명희 박사(전주대)의 사회를 시작으로, ‘벌거벗은 인간 군상’이라는 소주제의 발제도 진행됐다. 정지동 기자



송태섭 원로 목사

추수감사절

Thanksgiving Day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수원경원교회 박창열 담임 목사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동수원로 537번길 36-11 Tel. 031-212-6929

침신대, 전국 20개 침례교회 제37차 교회지원전도단 파송



제37차 교회지원전도단 파송예배 단체 사진. ©침신대



경로당 방문 봉사 모습. ©침신대



전도단원들이 노방전도를 하고 있다. ©침신대

한국침례신학대학교(총장 괴영민)가 지난 26~29일 3박 4일간 137명의 학생을 전국의 20개 침례교회에 제37차 교회지원전도단으로 파송했다고 최근 밝혔다.

교회지원전도단은 한국침례신학대학교의 오랜 전통으로 지역교회와 함께 전도활동을 하는 수업 과정이다. 교회지원전도단 수업은 신학과, 기독교교육학과

2, 3학년이 필수로 이수하는 과목으로 교회현장에서 전도훈련을 철저히 받도록 함에 그 목적이 있으며, 동시에 개교회에도 전도의 열정을 불러일으킴으로써 교

회의 영적 성장에도 기여하고 있다.

교회지원전도단원들은 그동안 준비한 노인정 방문, 학교 앞 전도, 친구초청잔치 등 다양한 전도활동을 통해 전도자의 마

음과 자세를 경험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섬김의 기쁨과 지역사회봉사의 필요성을 다시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교회지원전도단 파송기간 동안

침신대 11명의 신학과 교수들은 교회지원전도단원들의 활동을 격려·응원하기 위해 학생들이 파송된 교회를 방문하기도 했다.

장지동 기자

아신대 신약학 김규섭 교수, 2023년 폴 악트마이어상 수상

비백인 학자 중 처음

아신대학교 신약학 김규섭 교수(사진)가 2023년 폴 악트마이어 상(The Paul J. Achtemeier award for New Testament scholarship)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아신



대가 10일 밝혔다.

아신대에 따르면 폴 악트마이어 상은 데이비드 노엘 프리드먼상(SBL, 구약학 신진학자 논문상), 프랭크 무어 크로스 상(ASOR, 고대근동 저작상) 등과 더불어 성서학의 주요한 학문 연구상 중 하나다. 박사학위 취득 10년 이내의 학자들 중 1년에 한 명을, 응모한 논문을 바탕으로 미국성서학회(SBL)가 선정해 수상

하는 상이다. 2023년 폴 악트마이어상 선정 위원은 파울라 프레데릭슨(Paula Fredriksen), 제니퍼 누스트(Jennifer Knust), 매튜 린지(Matthew Rindge)다. 김 교수는 이번에 'The Concept of *ἀσθενία* in Galatians 3:15-18(갈라디아서 3:15-18에 나타난 디아테케의 개념)'이라는 논문으로 이 상을 수상했다.

이전 수상자들은 케빈 로우(C. Kevin

Rowe, 듀크 대학교), 제레마이아 쿨건(Jeremiah Coogan, GTU), 게릭 알렌(Garrick Allen, 글래스고우 대학교), 코

트니 프리센(Courtney Friesen, 아리조나 대학교) 등이었으며 2022년 수상자는 영국 엑서터 대학교 교수인 로건 윌리엄스(Logan Williams)였다.

김 교수는 비백인 학자 중에서 처음으로 이 상을 수상했으며, 북미 혹은 유럽, 호주 등 서구 지역의 연구기관에 소속되

지 않은 연구자가 수상한 경우도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김규섭 교수는 2024년 SBL의 연례 학회(Annual Meeting)에서 해당 분야의 주요한 2-3명의 학자들의 논찬과 더불어 해당 논문을 발표하게 될 예정이다.

김진영 기자

광야교회, 11일 노숙인 월동점퍼 나눔 등 ‘광야인의 날’ 개최

광야교회(임명희 목사)와 (사)사막에길 올리는사람들은 11일 서울 영등포구가 아래에서 ‘제24회 광야인의 날’ 행사를 연다. 예배와 공연, 식사 및 선물 증정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공연은 안영화 홍보대사의 사회로 가수 강승모, 헤리티지, cbs와이어, 월드웨어, 베고니아, 온누리카타팀, 미드바르 콰이어 등이 출연한다. 미드바르 콰이어는 거리에서 방황하던 이들이 단원이다. 후원자 윤준서 어린이는 부모의 용돈을 어떻게 값지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발표했다.

노숙인들에게 월동 점퍼와 국밥을 제공하는 순서도 마련됐다. 남서울교회(화종부 목사)를 비롯해 여러 단체가 후원한 월동 점퍼 2000벌이 준비됐다. 지역 어르



노숙인을 위해 기도하는 임명희 목사와 광야교회 신자들 ©임명희 목사

신 및 청년들도 자발적으로 질서유지에 나선다.

임명희 목사는 신학생 때 처음 영등포로 전도하러 갔다가 노숙인과의 인연으

로 광야교회를 세우고 노숙인 섬김 사역을 시작했다. 교회와 상담소를 통해 쌀과 의복, 밀반찬 등 지원을 받으며 노숙인 쉼터를 운영 중이다.

노형구 기자

교회를위한신학포럼, 바른 묵상과 설교 위한 ‘마가복음 세미나’ 열어

‘마가복음의 신학과 해석’ 주제로, 1차 20일 한우리교회 2차 27일 유튜브 방송

교회를위한신학포럼(이하, 교신포)이 ‘마가복음의 신학과 해석’이라는 주제로 89회 포럼을 2회에 걸쳐 현장과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1차 강의를 11월 20일에는 부산에 위치한 한우리교회(담임 박홍섭 목사)에서 개최하며, 2차 온라인강의는 유튜브 방송 27일 저녁에 진행한다. 온라인 방송의 제

방송은 12월 3일 자정까지 시청가능하다.

교신포는 “복음서 연구로 촉망받는 신약학자인 강대훈 교수님께서 강의를 진행하신다. 이미 강 교수님은 탁월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주석으로 호평을 받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총 5시간 동안 ‘마가복음의 신학과 해석’을 집중적으로 다루게 된다”며 “올바른 말씀 묵상을 기대하는 성도님들과 성경적인 바른 설교를 소망하는 목사님들에게 추천한다”고 했다.

강사인 강대훈 교수는 흥신대 신학

대학원 신약학, 미국 고든콘웰 신학교(Th. M.)와 영국 브리스톨대학교 트리니티칼리지(Ph. D.)에서 신약학 전공했다. 그는 ‘마태복음 주석상/하, 누가복음 통독주석, 마태복음의 하늘과 나라,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등의 저자이며, ‘새창조 성경신학, 혼돈과 질서 성경신학, 하나님께의 복 성경신학, 요한계시록 신학: 예언의 절정’ 등의 저자이다.

이상진 기자



정읍제일교회, 정읍시에 소외계층 돕기 위해 백미 230포 전달

정읍제일교회(목사 강필원)는 최근 정읍시청에 700만원 상당의 백미 10kg 230포를 전달했다.

이날 기탁된 백미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각 읍면동에 전달될 저소득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

정읍제일교회는 1909년 정읍 최초로 세워진 110여년이 넘는 역사가 있는 교회다. 올해 창립 114주년을 맞은 정읍제일교회는 지난 2015년부터 백미, 이불 등 매해 연말마다 이웃돕기 물품을 꾸준히 전달해왔다. 그러면서 지역사회 소외계층 돕기에 앞장서고 있다.



전달식을 마치고. ©정읍시

강필원 목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의 겨울나기에 앞으로도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싶다”고 했다.

이학수 시장은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저소득 취약계층에 골고루 전달하겠다”고 했다.

노형구 기자



제2회 위 브릿지 컨퍼런스 “온유와 겸손 그리고 섬김 목회로”

미주 기독일보가 주관하고 원하트 미니스트리가 기획한 제 2회 위 브릿지(We Bridge) 컨퍼런스가 6일부터 8일까지 감사한인교회(구봉주 목사)에서 개최됐다. 위 브릿지 사역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컨퍼런스는 ‘전도와 목양’이라는 주제로 Thanksgiving Mission Foundation 대표 김영길 목사가 주강사로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위 브릿지 사역은 팬데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작은 교회들을 돕고 함께 상상할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해 시작됐으며 큰 교회와 작은 교회의 협력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교회들이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다리가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사역의 주요 내용은 어려운 교회를 대상으로 남가주 지역의 큰 교회들과 결연을 진행해 올해 1월부터 시작해 매월 500불씩 3년간 정기후원을 받도록 하는 것이며, 또 하나는 목회자 및 사모를 위한 위 브릿지 컨퍼런스를 매년 진행해 작은 교회들의 목회사역을 돕는다.

컨퍼런스 첫 날인 6일은 먼저 베이커스 필드 ANC은누리교회 박성호 목사의 사회로 아이스 브레이킹 시간이 진행됐다. 지난 1회 컨퍼런스에 참여한 참가자들과 처음 참석한 사역자들이 함께 웃으며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또 총 9개 조로 나눠 조별토론을 진행하면서 서로 목회에 대한 단상을 나눴으며, 조별활동은 컨퍼런스 3일 동안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누거나 서로 중보기도하는 시간으로 이어졌다.

둘째 날 첫번째 강의를 한 에스라 김 목사(생명의바람교회, 미주 바이블 백신 센터장)는 ‘미주 신천지 포교와 활동 현황’이란 주제로 강의했다. 김 목사는 캘리포니아, 미주 전역에 퍼져 있는 신천지의 교세와 현황, 신천지의 교리, 온라인 전도 활동 등을 설명했다. 그는 “어떤 지역의 신천지 교회는 드러나놓고 포교 활동을 하고 어느 지역은 주소와 신천지 교회



유경애 목사

김귀보 목사

라는 것을 철저히 숨기면서 활동을 하고 있다”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면 신천지이니 주의를 요청한다.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성경은 봉합되어 있다. △천국 비밀이 감춰져있다 △봉합된 성경은 비유를 통해서만 열린다 △비유로 된 계시의 말씀을 깨달아야 한다 △재림 때 출현하는 약속의 목자, 이긴자가 있다 △시대별로 예언과 성취가 있다”

그러면서 에스라 김 목사는 “바이블 백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성도들에게 기독교의 든든한 뼈대를 세울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왜 예수님이 필요인지, 구원은 어떻게 받는지에 대해서 말이다. 우리가 설교를 하면서 기독교 교리에 대해 놓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뼈대를 세워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면서 “교회에서 성도들이 질문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서 성도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어야 한다. 성도들과 커피를 마시면서 편하게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성도들이 교회 밖에서 하는 성경 공부를 목회자가 알고 있어야 하고, 특히 2세 학생들이 신천지 교리에 빠지지 않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 2세들 90%가, 외국인 99%가 신천지에 대해 모르기 때문에 이들을 사전에 교육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최소한 12학년 때부터는 이단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둘째 날 세번째 강의자로 나선 유경애 목사(나성북부교회)는 ‘성경 중심 소그룹 목회란 주제로 강의를 했다. 유 목사는 먼저 신앙 성장 배경에 대해 설명하며 강의를 시작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교



미주 기독일보가 주관하고 원하트 미니스트리가 기획한 제 2회 위 브릿지(We Bridge) 컨퍼런스가 6일부터 8일까지 감사한인교회에서 개최됐다. ©토마스 맹 기자

회에 열심히 다니고 성경을 많이 읽었다. 그런데 대학교의 선교단체에서 성경공부를 하면서 내가 성경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충격을 받았다. 대학교 3.4학년 때에 주석책을 공부해가며 신인생들을 바이블스터디로 인도하는 사역을 7년 동안 했다. 4년 동안 가르치다가 한계를 느끼고 신학교 3년을 마치고, 포괄적인 공부를 위해서 미국에 오게 됐다”라면서 “1년 동안 구약학을 텍스트 중심으로 공부하면서 성경을 더 깊이 알게 됐다. 연구를 지속하며, 어떻게 하면 평신도들을 쉽게 가르칠 수 있을까라는 고민했다. 대학에서 12년 동안 제자 훈련을 이끌고, 담임목회를 하면서 결심한 것은 성도들이 성경을 잘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성도들이 이단에 빠지는 것은 성경을 더 알고 싶은 것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성경을 하나하나 잘 가르쳐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면서 “주일예배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다 알아들을 줄 알았는데 소그룹 성경공부를 하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 목사는 강의식 성경 공부의 문제점, 나성북부교회에서 하고 있는 성경 중심 소그룹 모임에 대해 간증했다.

마지막으로 유 목사는 “팬데믹 동안 목회가 힘들었지만 줌을 통해 온라인 성경 공부를 해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 예전에는 성경 공부를 하려면 교회에서 모였는데 수가 적었다. 지금은 온오프라인에서 모이는데 성도들이 반반씩 참여하면서 참여자들이 늘었다”면서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성경을 잘 알아야지 목사가, 그리고 교회가 건강해진다. 처음에 성경 공부를 할때 성도들이 미처지곤 했었는데 새롭게 접근하면서 성도들이 많이 달라졌다. 저는 교회에서 성도들과 공부를 해오면서 2명이든 3명이든 함께하면 성도들이 변화된다는 확신이 생겼다. 여러분도 그런 동기를 가지고 성경공부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네번째 강의 ‘말씀에 능력을 불어 넣는 내러티브 설교- 부제: 말주변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설교학’ 강의를 이끈 김귀보 목사(달라스 큰나무교회)는 “성도들은 다 아는데 목사님들이 모르는 두 가지 사실이 있다. 첫번째, 성도들은 말씀을 듣고 싶다. 정말 성경 이야기를 듣고 싶은 마음으로 회교를 온다. 그런데 목사님들은 성경 이야기하면 따분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성도들은, ‘말씀 들려오는데 말씀을 안 해주신다’고 한다. 이게 현실이다”라며 무엇보다 목회자는 다른 분



지난해에 이어 남가주 지역 목회자들이 일일 서버로 나서 참석자들을 섬기는 등 아름다운 장면이 연출됐다. ©토마스 맹 기자

야의 전문가가 아니라, 성경에 대한 전문가가 되어야 하고, 구전으로 계승되던 이야기가 문자화되면서 축약요약되고 시공간의 입체성을 잃고 평면화되었기 때문에, 문자와 과정을 가져와 상실된 시공간의 입체성을 회복하고, 저자와 원 청자가 암묵적으로 서로 이해하고 있고, 공유하고 있던 내용들을 발견해 현재의 청자들에게 전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성경은 구전으로 내려오다 문자로 기록되었다. 그 이야기를 처음 들은 청자, 그리고 편지를 받은 수신자들은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 환경을 다 알고 있었다. 그런데 성경이 문자화되면서, 축약되고 시간과 공간이 평면화되었다. 원래 청자와 독자는 그 성경을 읽으면 그 내용이 자연스럽게 입체적으로 살아나게 되어 있었다. 그런데 현대 우리 같은 독자와 청자들은 그렇지 않다. 원 독자, 원 청자와 현재의 독자와 청자 사이에는 광활한 괴리가 있다. 문화, 배경에 대한 이해도가 현저히 떨어진다. 성경을 읽어도 자연스레 머리에 그림이 안 그려진다”

김귀보 목사의 내러티브 설교에 따르면, 설교자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 말씀 연구하고 해석하고, 문자화 경전화된 말씀을 살아 있는 말씀으로 바뀌어 전달해야 한다. 여기에

공간화, 시각화, 입체화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어떤 심오한 뜻을 찾을 필요도 없으며, 그 내러티브 상황을 정확하고 제대로 전달할 수만 있다면 성도들은 저절로 그 설교에 몰입하고 관심을 갖게 된다.

첫번째, 그 과정에서 요구되는 것은 성경 본문을 마치 그 본문을 태어나서 처음 대하는 것처럼, 기존의 신학적인 이해나 선입견을 배제하고 마치 문학작품을 읽듯 대하는 것이다. 때로는 매체를 달리해서 읽을 때, 행간에 보이지 않았던 의미들이 새롭게 발견되기도 한다.

그는 이 내러티브 방식으로 설교하면, 말주변이 없는 사람도 충분히 연구하면 할 말이 생긴다며, “내러티브 설교의 목적은 말씀을 성도가 직접 만나게 하는 것이다. 설교자는 매개체이다. 설교자의 말로 들리지 않고, 설교자의 생각으로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게 하는 것이다”라고 정리했다.

또 둘째날 저녁집회는 김영길 목사(Thanksgiving Mission Foundation 대표)가 ‘섬김이란 주제로 이끌었다.

특별히 행사에서는 목회자들을 위한 헤어컷이 무료로 제공됐으며, 지난해에 이어 남가주 지역 목회자들이 일일 서버로 나서 참석자들을 섬기는 등 아름다운 장면이 연출됐다. 토마스 맹 기자

위 브릿지 폐회예배 ‘좌절된 꿈을 회복하라’

제 2회 위 브릿지 콘퍼런스 마지막 날, 은혜와 감동, 연합의 마무리

본보에서 주최한 작은교회를 위한 전도와 목양 컨퍼런스 제 2회 위 브릿지 콘퍼런스는 ‘좌절된 꿈을 회복하라’는 권면으로 마무리 됐다.

마지막 날인 8일 폐회예배 말씀을 전한 권준 목사(시애틀 형제교회)는 “하나님께

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꿈을 넣어주시고 함께 이루어 가시기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이 꿈이 역사할 때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 문제는 꿈이 임하면 고난도 따른다는 점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인데 왜 고난이 따르나? 이유는 다 알 수 없

지만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 꿈을 성취하실 뿐 아니라 그 속에 우리의 성품까지도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이다.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완성하실 것을 믿고 가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형제교회에 부임했을 당시를 간증했다. 권준 목사에게는 꿈이 있었는데 그

것은 바로 ‘기성교회도 변화되어 부흥할 수 있다는 모델을 창출하는 꿈’이었다. 한 때는 성장하고 부흥하는 기쁨을 누렸는데 언제부터인가 하향곡선을 그리며, 자기도 모르게 교회가 장례식날을 향하는 현실 가운데 있음을 인식하고 이런 기성교회를 섬기고자 했다.

지난 주 52주년 예배를 드리고 어느덧 24년을 한 교회에서 목회해 온 권준 목사는 여러가지 혁신적인 시도를 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변화를 시도할 때 반대가 컸다.

하지만 감사한 것이 교회의 문화이다. 변화를 시도할 때, 오히려 어르신들이 어떻게 이 변화에 기여할 수 있을까 고민하시고 기도하신다. 80년은 장로님은 너무 잘했다고 격려해주셨고, 한 성도님은 만불을 영아예배를 위해 헌금하셨다. 다음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더 부흥하는 교회를 우리는 함께 꿈꾸고 있다. 어려운 한 분 한 분도 다시금 꿈을 꾸기 바란다. 흑시 고난 가운데 좌절된 꿈이 있다면 결국에 가장 선한 계획을 갖고 당신만을 의지할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



권준 목사(시애틀 형제교회)가 제 2회 위 브릿지 컨퍼런스 폐회예배에서 말씀을 전했다. ©미주CGN

외하고 함께 나가자”고 했다. 김민선 기자



주변 시세대비 30% 낮은 분양가

최대 5억 저렴한 혁신적인 공급가

부담 없는

실투자금

중도금

전액

무이자

청약통장

무관



지금부터의 강남 부동산!

투자하지 말고 소유하라

부동산 시장의 회복세가 보이는 지금, 강남 3구의 알짜부동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높은 가격대의 넓은 공간을 선호하던 투자성향이 수준 높은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리는 생활가치 중심의 새로운 트렌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디오페라 서초

해링턴 타워

따져보면 불수록 합리적인 여유가!

2ROOM 3BAY 특화평면



TYPE. 2 (전용면적 58.82㎡)



2.6미터 층고+2룸 3베이 혁신평면 설계
소형 그 이상의 가치! 개방감과 공간감을 극대화한 **패작한 아파트형 주거공간**

차원이 다른 레지던스형 컨시어지 서비스 (매일)
하우스키팅, 팻케어, 조식배달서비스 등 수준이 다른 **고품격레지던스라이프**

트리플 역세권 프리미엄에 개발비전까지
정보사 이전 부지 개발, 양재R&CD특구 개발 등 **강남·서초 특급호재 프리미엄**

디오페라 서초 해링턴 타워 현황 :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18길 40

시영 아나자신선관 리버 (주)한빛에셋 (주)코오드 시영 효성중공업(주)

주택전시관 OPEN

02.525.0905

※상기 CG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한 것으로 실제 외 다를 수 있습니다. ※상기 CG에 표현된 건축물의 외관 디자인, 색채, 경관조명, 옥상정식물, 각종 시설물, 명칭 등은 협정여건 및 인허가 협의에 따라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배우 매트 데이먼, 매각 위기 뉴욕 교회 구하기 위한 투쟁 동참

헐리웃 배우 매트 데이먼(Matt Damon)과 마크 러팔로(Mark Ruffalo)가 뉴욕 맨해튼 어퍼웨스트사이드(Upper West Side)에 소재한 역사적인 교회가 개발자들에게 매각되는 것을 막기 위한 투쟁에 동참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이들은 신자 12명이 출석하는 웨스트파크 장로교회(West Park Presbyterian Church)를 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교회는 3천만 달러 규모의 고급 콘도를 건설하기 위해 절거하려는 개발자들에게 매각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들은 로마네스크 리바이벌(Romanesque Revival) 건물에 위치한 비영리 지역 공연 예술 센터인 '웨스트파

크센터(The Center at West Park)에서 오는 11월 16일 연극 'This Is Our Youth' 공연을 할 예정이다.

뉴욕타임즈(NYT)에 따르면 이 교회는 지난 2010년 뉴욕시 랜드마크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교회 지도자들은 수리비 2백만 달러(약 26억원) 때문에 2022년 콘도미니엄 개발자와 구속력 있는 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교회 지도자들은 교회 예배 공간이 포함될 콘도미니엄 건설을 위해 건물의 랜드마크를 해제하고 건물을 절거하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랜드마크 보존 위원회(Landmarks Preservation Commission)는 신청에 이의를 제기하고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 행사장소 대여나 보육센터와

같은 교회의 대체 소득 창출 용도를 제안했다고 뉴욕포스트(New York Post)가 보도했다.

한편, 데이먼과 러팔로 외에도 웬델 피어스(Wendell Pierce), 코미디언 에이미 슈머(Amy Schumer), 래퍼 겸 배우 커먼(Common) 등 다른 유명 인사들이 건물을 구하기 위한 노력에 스타 파워를 쏟았다.

연극 'This Is Our Youth'를 집필한 극작가 케네스 로너건(Kenneth Lonergan)은 NYT와의 인터뷰에서 "데이먼에게 미시 에이거(Missy Yager)와 러팔로(Ruffalo) 등이 참여하고 있는 출연진에 합류해달라고 요청했다. 오프 브로드웨이 작품에 출연했던 조시 해밀튼(Josh

Hamilton)이 출연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로너건 작가는 "그에게 상황을 설명했고 즉시 '나도 하겠다'고 말했다"라며 "난 그가 '가능한 한 할게'라고 말할 줄 알았다. 사실 과거에 그는 약 1-2년 정도 그 교회에서 한 블록 떨어진 곳에 아파트를 구하고 있었고, 이것은 과거로 돌아가는 일이었다"라고 했다.

로너건 작가는 "2002년 두 달 동안 런던 프로덕션에 출연해서 이미 그 연극을 알고 있던 데이먼은, 이 동네의 특별함을 유지하고 싶어한다"고 덧붙였다.

데이먼의 공연 티켓은 500달러(약 65만원)부터 시작하지만 11월 17일 두 번째 공연의 최고 가격은 250달러(약 32만 5

천원)에 불과하다. 공연 둘째 날 일부 좌석은 고정된 입장료가 없고, 원하는 금액을 지불하면 된다.

웨스트파크센터는 "우리 이사회는 이 중요한 NYC 랜드마크를 지역 주민과 NYC 공연 예술 공동체가 접근할 수 있는 문화 자원으로 보존하기 위해 10년 넘게 노력해 왔다"고 전했다.

이어 "웨스트파크센터는 활기차고 번성하는 예술 및 문화의 허브다. 2017년부터 이 센터는 15,000명이 넘는 관객들에게 300회 이상의 공연을 선보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우리가 함께 목소리를 내고, 우리 지역사회가 또 다른 럭셔리한 고층 개발이 아닌, 예술과 문화에 더 접근하기



웨스트파크장로교회. ©위키피디아

쉽고 포용적인 공간을 원한다는 것을 보여 줄 수 있다"고 했다. 이미경 기자

“美유권자 54% 네타냐후 총리에 긍정적… 68% 휴전 반대”

새로운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유권자 대다수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지지하며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에 반대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여론조사에 참여한 대다수의 응답자는 네타냐후 총리를 호의적으로 생각한다고 답했으며, 응답자 중 3분의 2 이상은 이스라엘 총리가 가자지구 휴전 요구를 거부한 데 동의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이 시작된 지 몇 주가 흐른 가운데 하마스가 민간인의 안전한 이송을 거부하면서 일부 정치단체와 종교단체는 가자지구 민간인에게 가해진 피해에 대응해 휴전을 촉구했다.

이번 전쟁은 하마스 무장세력이 약 1천4백명을 고문, 강간, 살해한 지난 10월 7일(이하 현지시간) 이스라엘 테러 공격 이후 발생했으며, 그 중 대다수는 미국인 30명을 포함해 민간인이었다. 수천 명의 민간인이 부상을 입었고, 무려 250명이 하마스에 의해 가자지구로 인질로 끌려갔다.

최근 라스무센 리포트(Rasmussen Report)가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 유권자의 54%가 네타냐후 총리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반면, 그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응답자는 31%, 잘 모르겠다는 응답자는 15%였다.



2023년 10월 28일, 이스라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기자회견에서 가자지구에 대규모 지상전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페이스북

또한 응답자의 68%는 "휴전은 하마스 테러에 항복하는 것과 같다"는 네타냐후 총리의 발언을 지지했으며, 21%는 총리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고 10%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 보고서는 라스무센이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미국 유권자 99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나왔으며, 95% 신뢰 수준에서 ±3% 포인트의 오차 범위를 갖고 있다.

보고서는 또한 조사에 참여한 미국인 유권자의 59%가 이스라엘에 더 많이 공감하며, 응답자 중 18%는 팔레스타인에 더 많이 공감했다고 밝혔다. 응답자 중 23%는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라스무센 보고서는 정당 지지에 따른

응답에 대해 조사했다. 공화당 응답자의 70%가 이스라엘에 더 많은 공감을 표한 반면, 민주당 응답자의 48%는 같은 답을 했다. 무소속 응답자의 60%는 이스라엘에 더 많은 공감을 보였다.

하마스의 10월 7일 학살에 대응하여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군대의 대부분을 주둔하고 있는 가자지구에 광범위한 보복 공격을 가해 수많은 테러리스트와 민간인을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마스가 운영하는 가자 보건부의 확인되지 않은 주장에 따르면 1만여명 이상의 팔레스타인인이 사망했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의 한 관계자는 사망자 수가 더 많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CP는 전했다.

바바라 리프 미 국무부 군통 담당 차관보는 지난 8일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사망자 수가 현재 언급된 것보다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정치전문매체 더 힐(The Hill)에 따르면, 리프 차관보는 "이 분쟁과 전쟁 상황에서 사상자 비율을 평가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라며 "솔직히 우리는 그 수치가 매우 높다고 생각하며, 인용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을 수도 있다"라고 했다.

그는 이어 "총소리가 조용해진 후에야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라며 "어떤 수치로 규정할 수는 없지만 보고된 것보다 훨씬 더 높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덧붙였다. 이미경 기자

EU, 가자 지구 인도적 지원 제공 위해 더 많은 항공편 편성

유럽연합(EU)은 가자 지구에 필요한 구호품을 공급하기 위해 6개의 항공편을 추가로 편성했다고 발표했다.

10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유럽연합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인도주의적인 공중가교(air bridge) 비행이 앞으로 며칠 동안 예정되어 있다"고 밝혔다.

성명에 따르면 이들 항공편 중 두 편은 이번 주 금요일(10일)과 토요일(11일) 이탈리아 남부 브린디시에서 출발할 예정이며, EU로부터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에 기부된 55t의 물품을 운반한다.

루마니아가 기증한 텐트와 매트리스를 싣고 다음 주 루마니아 수도 부쿠레슈티에서는 3편의 항공편이 추가로 출발한다.

또 EU 보도자료에 따르면 마지막 항공편은 유엔기구와 기타 인도주의적 협력국들의 물자를 수송하며, 이달 말 벨기에 오스텐드에서 출발할 예정이다. EU는 "이번 조치로 지난 몇 주간 총 EU 공중가교 비행 횟수가 14회로 늘어났으며, 가자 주민들을 위한 550t 이상의 긴급 지원이라고 국경 통과 지점에 신속하게 배치되기 위해 이집트로 이송됐다"고 밝혔다.

EU 지도부는 가자지구에 더 많은 인도주의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으며, 우르줄라 폰테라아 이엔 EU 집행위원장은 6일 EU 대사들에게 "가자지구의 막대한 인도주의적 필요를 충족시키기에는 양이 너무 적다"고 말

했다.

야네즈 레나르치치 EU 위기관리 담당 집행위원은 10일 세계가 현재 "가자지구에서 인도주의적 재앙을 목격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레나르치치 집행위원은 "인도주의적 자금 지원을 4배로 늘리고 파트너와의 협력을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EU는 인도주의적 지원에 대한 접근이 불충분하고 불안정으로 인해 여전히 제약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럽연합은 인도적 지원에 대한 약속의 일환으로 해상 회랑을 포함한 가자 지구에 대한 지원을 받기 위한 다른 경로도 마련하고 있다고 폰테라아 이엔 집행위원장이 10일 밝혔다. 박준호 기자

WSJ “미 민주당 맨친 상원의원 대선 출마 가능성 크다”

민주당 소속이면서 보수색 강한 중도파

미 민주당 상원의원이면서 민주당 정부의 주요 정책에 발목을 잡았던 조 맨친 의원이 내년 상원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내년 대선에 중도파 후보로 출마할 가능성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는 맨친 의원이 민주, 공화 양당이 아닌 제3의 후보를 출마시키려 노력해온 노 레이블스(No Labels)라는 단체와 10년 이상 관계를 맺어 왔으면서 맨친 의원이 대선 출마 의사를 밝힐 경우 노 레이

블스의 1순위 후보가 될 것이라고 했다.

올해 76살인 맨친 상원의원은 내년 상원의원 선거 불출마를 발표하면서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으나 "전국을 여행하며 중도층 중심으로 미국인들을 단결시키는 운동에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지를 알아볼 것"이라고 밝혔다. 맨친 의원은 비공개로 노 레이블스 후보로 대선에 출마할 경우 선거 캠페인 진행 방식과 출마할 경우 50개주 전체에 모두 출마할 수 있을지 등을 타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맨친 의원은 지난 7

월 뉴햄프셔주에서 열린 노 레이블스 행사에서 "출마한 선거에서 패배한 적이 없다. 앞으로도 출마한다면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노 레이블스의 제3 후보가 출마할 경우 트럼프 공화당 후보 당선 가능성이 커질 것을 우려해왔다.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은 노 레이블스 후보가 출마해 당선에 필요한 선거인단 270명을 확보하는 후보가 없을 경우 미 하원이 대통령을 선출하게 된다면서 하원을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당선될 것이라고 경고해왔다. 강영진 기자

기회를 ‘캠’

가치를 ‘캠’

가능성을 ‘캠’

대한민국 희망을 캠 ‘캠코’

부채로 힘든 **서민**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위기에 빠진 **기업**이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국민이 **국가자**산을 누릴 수 있도록
언제나 당신편에 서서 **대한민국 자산**을
희망으로 바꾸는 일, 캠코가 하고 있습니다

국민에 안정을, 기업에 활력을, 국가자산에 가치를 더하는 리딩플랫폼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태로운 가계의 기회를

-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출발기금

침재된 국가자산의 가치를

- 유휴 지 활용 국유재산 관리
- 노후 국공유재산 개발
- OnBid (온비드)

재기를 꿈꾸는 기업의 가능성을

- 기업구조혁신펀드
-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국가)
- 채권 선택금융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 www.kamco.or.kr 문의 1588-3570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하나금융그룹이 함께 응원합니다

Hana Financial Group supports Busan's Bid to host the World EXPO 2030



World EXPO 2030
BUSAN, KOREA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하나자산신탁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핀크

 하나금융그룹

“대화 내용 자동 통역”… AI 폰 비서 시대 열린다

내년부터 통화 내용을 실시간 번역해주는 ‘손 안의 만능비서’ 시대가 열린다. 인공지능(AI) 스마트폰이 본격적으로 출시되기 때문이다. 당장 연초 삼성전자가 ‘갤럭시 S24’ 시리즈로 최초의 AI 폰 출력을 준비하고 있고, 애플도 내년 아이폰16 시리즈에 AI를 담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이동통신사들도 SK텔레콤의 AI 개인비서 에이닷(A)을 필두로 자체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삼성의 ‘갤럭시 AI’, 전화 통화 실시간 통역해준다…내년 갤럭시 S24부터 도입**

1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자체 개발한 생성형 AI ‘삼성 가우스’와 ‘갤럭시 AI’ 등을 기반으로 향후 출시될 제품들에 AI를 접목할 계획이다.

최근 삼성 AI 포럼에서 공개된 삼성 가우스는 머신 러닝 기술을 기반으로 언어 코드·이미지 모델 등 3가지로 구성된다. AI가 자동으로 메일 작성이나 문서 요약·

번역 등을 도와주고, 소프트웨어 개발 시 코딩까지도 대신해줄 전망이다. 이미지 제작이나 편집도 AI가 자동으로 맡아준다.

삼성전자는 삼성 가우스를 향후 출시될 제품에 단계적으로 탑재하겠다고 발표했다. 첫 타자는 1월 출시 예정인 갤럭시 S24가 유력하다.

삼성전자가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은 클라우드 AI와 온디바이스 AI가 결합된 ‘하이브리드 AI’다. 일반적인 생성형 AI처럼 클라우드 서버와 연동되는 기능과 스마트폰 기기가 AI를 지원하는 기능을 합쳐 그 자체로 똑똑한 스마트폰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S24 공개에 앞서 이 같은 AI 기능의 일부를 사전 공개하기도 했다. AI가 자동으로 통역을 해주는 실시간 통역 통화(AI Live Translate Call) 기능이 대표적이다.

갤럭시 AI 폰으로 전화를 걸 때 편하게 모국어로 이야기를 하면 갤럭시 AI가 실

시간으로 상대방의 언어로 통역해 전달해준다. 상대방이 갤럭시 AI 폰이 아니어도 되고, 별도 앱을 설치할 필요도 없다. 폰 자체에 AI가 적용된 온디바이스 AI 기반인 만큼 통화 내용이 유출될 염려도 없다.

이를 두고 삼성전자는 “실시간 통역 통화는 앞으로 갤럭시 AI가 가져올 수 많은 새로운 경험 중 한 가지”라며 “이는 갤럭시가 그리는 미래의 일부이자 앞으로 선보일 변화의 ‘맛보기일’ 뿐이다. 갤럭시 AI는 더 많은 가능성을 열어나가는 데 선두에 설 것”이라고 자신을 표했다.

◆**애플도 내년 iOS 18로 생성형 AI 적용 가능성…‘사리’ 더 똑똑해질까**

CNBC 등 외산에 따르면 애플은 구글, 아마존 등 경쟁사들을 따라잡기 위해 생성형 AI 개발에 연간 1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간 애플은 AI 비서 사리(Siri)를 비롯해 텍스트 자동 수정, 사진 편집 등 단순한 기능에만 AI를 활

용해왔다.

모바일 분야에도 AI 애플이 찾아온 만큼 자체 개발 생성형 AI로 더 고도화된 기능을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애플은 생성형 AI를 통해 사리가 보다 복잡한 명령에도 응대할 수 있게 하고, 메시지에 애플 뮤직 등에도 AI를 접목하는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팀 쿡 애플 CEO(최고경영자) 또한 3분기 회계연도 4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생성형 AI 전략을 언급했다. 그는 “AI는 그간 모든 애플 제품에 필수적인 기본 기술이었다”며 “아직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생성형 AI에 관해 애플이 분명히 진행 중인 일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꽤 많은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생성형 AI 투자를) 책임감 있게 할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애플 제품의 발전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높였다.

업계에서는 애플이 내년 업데이트될 차

세대 운영체제(OS)인 iOS 18, 아이패드 OS 18 등을 통해 자사 제품에 새로운 LLM(대규모언어모델)과 생성형 AI 기능을 도입할 것으로 보고 있다. 새로운 AI 기능이 OS 업데이트를 통해 전작들까지 모두 적용될지, 내년 출시될 아이폰16에만 독점 도입될 지는 미지수다.

◆**‘에이닷’ 등 이통사 AI 서비스도 고도화 추세…“스마트폰 도약 내년부터 시작”**

이동통신사들도 최근 AI 기술을 휴대전화에 빠르게 접목하고 있다. 통화녹음, 요약 등 신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SK텔레콤의 ‘에이닷’ 전화가 대표적이다. SK텔레콤의 에이닷 전화는 AI가 통화 내용의 맥락을 분석하고 통화유형과 요약까지 제공해준다. 특히 에이닷은 기존에 통화녹음이 불가능했던 아이폰에서도 통화녹음을 가능하게 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AI가 통화를 녹음해줄 뿐만 아니라 통화 전체의 주제에 해당하는 한 줄 요약, 통화 문단별 상세 요약, 통화별 대표 태

그, 통화 중 언급된 일정·전화번호·계좌번호 등 패턴에 대한 AI 제안 등까지 생성해준다.

에이닷은 아같은 커뮤니케이션 AI 뿐만 아니라 수면관리 서비스까지 제공하며 호평을 받고 있다. SK텔레콤은 연말까지 실시간 통화 통역, AI 증권뉴스, AI 모션 프로필 등의 추가 기능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아직 KT, LG유플러스는 주로 B2B(기업간거래)에 초점을 둔 AI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으나 이들 또한 일반 휴대전화 가입자들을 위한 기능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앞서 공개한 통화 통역 기능처럼 상상 속이나 있던 다양한 편의 기능들이 내년부터 출시될 스마트폰에 대거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며 “스마트폰이 말 그대로 한단계 도약하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윤현성 기자

윤, APEC 계기로 IPEF 정상회의 참석… 협력 계획 논의

IPEF 14개 참여국 정상 참석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6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인도태평양경제프

레임워크(IPEF)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대통령실은 12일 오전 공지를 통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참석을 위해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하는 윤 대통령이 같은 기간 열리는 IPEF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상회의에는 미국, 일본, 호주, 싱

가폴 등 IPEF 14개 참여국이 참석한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그간의 협상 성과를 확인하고 향후 구체적인 협력 계획을 논의할 계획이다.

IPEF 참여국은 지난 5일부터 12일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IPEF 제7차 공식 협상을 진행했다.

해당 협상에서 IPEF 참여국들은 필라

1(무역), 필라3(청정경제), 필라4(공정경제) 분야에서 연내 성과를 목표로 잔여 쟁점에 대한 합의점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소리 기자

최태원 “노소영, 언론 플레이 유감… 증오 유도 말라”

노소영 관장과 이훈소송을 진행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12일 “노 관장(아트센터 나비)과의 혼인 관계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훨씬 이전에 이미 완전히 파탄이 나 있었다”며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앞서 노 관장이 “남의 가정을 깬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한다”는 심경을 밝힌 것에 대한 대응 차원이다.

노 관장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문화역서울284에서 열린 서울융합예술페스티벌 인포트렌드 개막식에서 기자와 만나 “가정은 계약이 아니고 연약하다. 약속을 지킨다는 것이 사람과 동물의 다른 점”이라며 “가정이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 아이를 낳고 부인 행세를 하는 것은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 회장은 측은 “(노 관장과) 십수 년 동안 형식적으로만 부부였을 뿐 서로 불신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남남으로 지내 오다가, 현재 쌍방이 모두 이혼을 원한다는 청구를 해 1심에서 이혼하라는 판결이 이루어진 상황”이며 “그럼에도 노소영 관장이 마지막 남은 재산분할 재판에서 유리한 결론을 얻기 위해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 대해 일방적인 자신의 입장을 언론에 이야기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어 당황스럽기까지 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인 일로 사회적인 논란을 일으키는 게 부적절하고 또 항소심 재판부의 당부도 있어 자세히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며 “여러 가지 한안으로 위중한 상황에서 논란을 야기한 점 국민들께 송구하다”고 덧붙혔다.



이훈 소송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뉴스1

최 회장 변호인 측 소송대리인단도 “불과 2일 전에 항소심 재판부가 ‘여론몰이식 언론플레이 자제하라’고 당부했음에도 노 관장이 이를 무시하고 자신의 일방적인 주장을 기자회견과 인터뷰로 밝혔다”며 “그러면서, 법정에서 다투고 있는 당사자 사이의 문제를 고의로 제삼자에게 전가해 세간의 증오를 유도하려는 행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라고 밝혔다.

◆**재산분할 소송 2라운드 돌입…SK 주식 항방 주목**

법원은 지난해 12월 1심에서 이혼 판결을 했다. 법원은 1심에서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최 회장의 청구는 기각했다.

이어 열리는 항소심에서 두 사람은 재산분할 및 위자료 액수를 다투게 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 게 위자료로 1억원,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노 관장이 요구한 최 회장 보유 SK(주) 주식 중 50%는 인정하지 않았다.

전업주부의 내조와 가사노동만으로는

주식 같은 사업용 재산을 분할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자산 형성 과정에 기여한 부분이 없다고 본 것이다.

노 관장은 적절한 위자료 수준에 관한 질문에 “그것은 말하기 어렵다. 전적으로 재판부 결정에 따라야 한다”며 “제가 1심에 대해 항소한 것만 봐도 동의할 수 없다는 의미가 있다. 사회의 새로운 진화 과정, (여성의 내조 가치를 인정받는) 이정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위자료·부동산 퇴거 등 법적 공방 잇달아**

노 관장은 지난 9일 오후 항소심의 첫 재판 절차인 변론준비기일에 직접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통상 가사소송의 변론준비기일에는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다. 그런데도 노 관장이 직접 출석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그만큼 노 관장이 이번 항소심에 적극적으로 임하려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첫 변론기일은 내년 1월 11일로 잡혔다.

노 관장은 이혼 소송과는 별도로 올해 3월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노 관장은 해당 소송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질문에 “남의 가정을 깬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한다”며 “가정이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 아이를 낳고 부인 행세를 하는 것은 안 된다”고 말했다.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도 진행 중이다. SK 측은 서울 종로구 SK 서린사옥 4층에 입주했던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퇴거를 요구하고 있다.

이민준 기자

KB 금융그룹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나, 우리, 모두가 바라던 카드를 만날 시간

KB국민 WE:SH 카드
My WE:SH / Our WE:SH / WE:SH ALL

time to WE:SH

■ KB국민 WE:SH ALL 카드 연회비: 일반카드(국내전용(Local), 국내외겸용(VISA)) 2만원(기본연회비 7천원 + 제휴연회비 1만3천원), 모바일 단독카드(국내전용(Local), 국내외겸용(VISA)) 1만4천원(기본연회비 1천원 + 제휴연회비 1만3천원) ■ KB국민 Our WE:SH 카드 연회비: 일반카드(국내전용(Local), 국내외겸용(Mastercard)) 1만5천원(기본연회비 7천원 + 제휴연회비 8천원), 모바일 단독카드(국내전용(Local), 국내외겸용(Mastercard, AMEX)) 1만5천원(기본연회비 7천원 + 제휴연회비 8천원) ■ KB국민 My WE:SH 카드 연회비: 일반카드(국내전용(Local), 국내외겸용(Mastercard, AMEX)) 1만5천원(기본연회비 7천원 + 제휴연회비 8천원), 모바일 단독카드(국내전용(Local), 국내외겸용(Mastercard, AMEX)) 9천원(기본연회비 1천원 + 제휴연회비 8천원) ■ 연체이자율: 회원별 / 이용상품별 정상이자율 + 3%p, 최고 연 20% 이내 ※ 단, 연체발생시점에 정상이자율이 없는 경우 아래와 같이 적용함 - 일시불 거래 연체 시: 거래발생시점의 최소기간(2개월) 유이자 할부수수료를 적용 - 무이자할부 거래 연체 시: 거래발생시점의 동일한 할부기간(기간의 유이자 할부수수료를 적용) ■ 신용카드 발급이 부정당한 경우(개인신용평점 낮음, 연체금 보유 등) 카드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카디이용대금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를 지정된 대금 결제일에 상환합니다. ■ 금융소비자는 금소스 제19조제1항에 따라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여신금융협회 심의필 제 2023 - C2b - 01317호 (2023.02.17 ~ 2024.02.16)

KB국민카드

美플로리다 법원, 남학생의 여성 경기 출전 금지 판결

미국의 플로리다 법원이 자신을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남학생이 여성 경기에 참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주법을 지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판사는 이 조치가 트랜스 정체성을 가진 청소년을 차별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명한 플로리다 남부 지방법원 판사 로이 K. 알트만은 지난 6일 판결문에서 “체육 부문에서 여성의 평등을 장려하는 것은 정부의 주요 관심사”라며 “모든 성별에 기초한 분류가 평등 보호 조항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알트만 판사는 “남녀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체육 기회에서의 역사적(그리고 지속적인) 불균형을 고려할 때, 정부는 여학생들을 위한 체육 기회를 보호하고 장려하는 데 중요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이는 전국의 법원도 비슷한 판결을 내렸다고 썼다.

알트만은 또한 이 법이 성전환 학생들을 차별한다는 주장을 거부하며, 해당 법의 내용이나 제안자가 명시한 의도에 약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은 “모든 성별의 트랜스젠더 운동선수가 혼성 또는 다양한 성별 팀에서 경기를 치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법

은 트랜스젠더 남성 선수들이 남성 스포츠 팀에 출전하여 경기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허용한다”며 “만일 이 법이 트랜스젠더 학생 운동선수에게 차별을 의도했다면, 그 결과는 매우 미흡하다”고 썼다.

2021년 론 드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여성 스포츠 공정화 법(Fairness in Women’s Sports Act)’으로도 알려진 상원법안 1028호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공공 기관이 후원하는 여성 스포츠 행사에 생물학적 남성이 참가하는 것을 금지한다.

드샌티스는 당시 성명에서 “플로리다의 모든 소녀들이 운동 경기에서 젊은 여성

들에게 제공되는 기회를 얻도록 공평한 경기장에서 경쟁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여성들은 운동 경기에서 동등한 기회를 얻기 위해 수십 년간 싸워왔다. 우리는 다른 주에서 일어나는 일들처럼, 그 기회들이 잠식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그것은 상식”이라고 했다.

법이 서명된 직후, 생물학적 남성이지만 자신을 여성이라고 밝힌 트랜스젠더 중학생과 그의 부모는 이 법이 차별적이라며 주정부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법원 문서에 D.N.으로 확인된 여성 대명사를 사용하는 이 학생은 자신이 초등

학교 때부터 여자부 경기에 참여해 왔고, 11세부터 성호르몬 차단제를 복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장은 “그녀에게 이러한 기회를 빼앗는 것은 미래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는 수치심을 불러일으키고, 긍정적인 자의식을 약화시켜 평생에 걸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D.N.)이 고등학교와 대학에서 여성 경기를 할 수 없다면, 그녀는 어떠한 경기도 치를 수 없게 된다”며 “감정적 및 심리적으로 그녀를 지원해 온 팀 네트워크의 일원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진 김 기자



2022년 11월 선거에서 론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연임에 성공한 뒤 연설을 하고 있다. ©론 드산티스 X(구 트위터)

히잡 없이 병원 못 간다? 이란 노벨평화상 수상자 옥중 단식투쟁

모하마디 가족 “히잡 거부해 검사가 병원 이송 막아”

이란에서 여성 억압에 맞서 싸운 공로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이란 인권운동가 나르게스 모하마디(사진)가 옥중에서 단식투쟁을 시작했다.

6일(현지시간) 영국 BBC에 따르면 수감 중인 이란 인권보호센터 부소장 나르게스 모하마디(61)가 노벨평화상을 수상한지 한 달 만에 단식 투쟁을 시작했다고 그의 가족이 밝혔다.

모하마디의 가족은 그가 “아픈 수감자들에 대한 치료를 미루고 방치해 개인의 건강과 생명을 잃게 하는 이슬람 공화국의 정책과 이란 여성들에게 ‘죽음 또는 히잡 의무 착용을 강제하는 정책에 항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모하마디는 심장질환과 폐질환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그가 머리를 가리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검사가 병원 이송을 막고 있다고 그의 가족은 전했다.

또 고도소 관계자들과 사법부에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검사 한 명이 모하마디가 일주일 동안 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이송되는 것을 반대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1일, 고도소의 다른 여성 수감자들이 모하마디를 병원으로 이송하도록 사법당국에 압력을 가하기 위해 이를 밤낮 동안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모하마디 가족들은 “고도소 소장이 상급 당국의 지시에 따라 히잡을 쓰지 않고 병원에 보내는 것이 금지됐다고 발표했다”고 전했다.

모하마디는 현재 정부 시위를 지원하는 등 혐의로 징역 10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그는 총 13번 체포됐고, 5번의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총 31년의 징역 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154번의 체적질 형도 선고받았다. 이 처벌의 실행 여부는 불확실하다.

이슬람의 법률인 샤리아에 근거한 이란 법에 따르면 여성들은 히잡 등 머릿수건으로 머리를 가리고 목매를 위장하기 위해 길고 험렁한 옷을 입어야 한다.

지난달 31일 모하마디는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후 노르웨이 노벨위원회에 보낸 전언에서 히잡 의무화에 대해 “이란의 권위주의적 종교 체제의 존속 여부가 달린 사회적 통제와 억압의 수단”이라고 묘사했다.

모하마디에게 노벨 평화상을 수여한 노벨위원회의 베리트 레이스 안데르센 위원장은 이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프랑스 AFP통신에 따르면 안데르센은 “여성 수감자들이 병원에 입원하기 위해 히잡을 써야 한다는 요구는 비인간적이고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김하은 기자

美종교자유지수 1위 일리노이… 최하위는 웨스트버지니아

미국의 50개 주에 대한 ‘종교 자유지수’ 보고서에서 일리노이가 가장 많은 종교적인 자유 보호 장치를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퍼스트리버티연구소(First Liberty Institute)의 종교, 문화 및 민주주의 센터는 지난주 미국의 두 번째 연례 종교 자유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종교 자유를 위해 마련된 보호 장치의 수로 50개 주 전체의 순위를 매겼다. 2022년에는 미시시피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올해 일리노이가 획득한 종교 자유지수 85%는 지난해 81%보다 상승했다. 미시시피는 작년에 82%에서 올해 64%를 받아 종교 자유 보호 부문에서 4위로 하락했다. 지난해 최하위였던 캘리포니아는 올해 5위를 기록했으며, 올해는 웨스트버지니아가 최하위로 내려왔다.

반영된 점수는 종교적 이유 또는 사유 없이 부재자 투표가 가능한 여부, 의료 제공자가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낙태, 불임 시술 및 피임 처방을 거부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주에 종교자유회복법(Religious Freedom Restoration Act)이 있는지 등을 고려한 결과이다.

뿐만 아니라 종교 단체, 공무원 및 영리 기업이 동성 결혼식 참여나 주회를 거부할 수 있는 능력과, 학령기 아



동이 종교적인 이유로 예방접종 거부 가능한 여부도 평가 점수에 반영되었다.

일리노이는 응급 의료 상황에서 낙태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보호 조항과, 공무원이 종교적 신념에 위배될 경우 동성 결혼 주례를 거부할 수 있는 법률을 제외한 모든 종교 자유 보호 장치를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리노이는 영리 기업이 동성 결혼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반면 올해 14%의 점수를 받은 웨스트버지니아는 종교 자유 보호 조항 중 7개만 갖추고 있다. 이 주는 고용주가 고용주 후원 건강 보험의 일환으로 직원에게 피임 보장을 제공하지 않도록 허용하며, 개인이 응급 의료 상황을 포함하여 낙태 시술을 거부할 수 있다. 또한 웨스트버지니아에서는 개인, 사립 및 공립 병원이 불임 시술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민사 책임에서 면제와 관련된 보호 장치가 없다. 또한 미

일리노이 외에도 50% 이상의 점수를 받은 12개 주는 사우스캐롤라이나(67%), 뉴멕시코(66%), 미시시피(64%), 오하이오(64%), 위싱턴(62%), 아칸소(61), 플로리다(60%), 메릴랜드(57%), 펜실베이니아(55%), 유타(55%), 테네시(51%), 델라웨어(50%)가 있다.

미국의 대부분의 주에서는 종교적 이유로 어떤 형태든 부재자 투표를 허용하며, 건강 보험 의무로부터 피임 관련 보장에 대한 면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보험 의무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는 하와이, 조지아, 위스콘신, 아이오와, 오리건, 노스캐롤라이나, 버지니아, 뉴저지, 미시간, 콜로라도, 뉴욕, 버몬트, 캘리포니아, 뉴햄프셔 등 14개 주이다.

그러나 50개 주의 절반 이상은 종교인들이 종교적 양심을 침해받지 않도록 고안된 종교자유회복법을 갖추지 못했다. 이에 해당되는 주는 오하이오, 위싱턴, 메릴랜드, 유타, 델라웨어, 하와이, 노스다코타, 메인, 마네스타, 조지아, 위스콘신, 매사추세츠, 네바다, 아이오와, 오리건, 노스캐롤라이나, 뉴저지, 미시간, 콜로라도, 와이오밍, 네브라스카, 알래스카, 뉴욕, 버몬트, 캘리포니아, 뉴햄프셔, 웨스트버지니아 등 27개 주이다.

오하이오와 미시시피는 의료 종사자를 위한 가장 많은 보호장치를 갖춘 주인 반면, 버몬트와 뉴햄프셔에는 이와 관련된 보호 장치가 없다. 또한 미

시시피와 유타는 동성 결혼에 참여하거나 참석하지 않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가장 많은 보호 장치를 갖추고 있지만, 반 이상의 주는 그러한 보호 장치가 전혀 없다.

동성 결혼 주례 또는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 보호 장치가 없는 주로는 사우스캐롤라이나, 뉴멕시코, 오하이오, 아칸소, 펜실베이니아, 테네시, 캔자스, 아칸소, 노스다코타, 아이다호, 몬태나, 앨라배마, 사우스다코타, 조지아, 위스콘신, 루이지애나, 미주리, 매사추세츠, 아이오와, 오리건, 버지니아, 뉴저지, 인디애나, 켄터키, 콜로라도, 와이오밍, 네브라스카, 알래스카, 웨스트버지니아 등 29개 주가 있다.

올해 보고서에서 일리노이, 위싱턴, 플로리다, 펜실베이니아, 하와이, 위스콘신, 오리건은 학령기 아동을 위한 가장 많은 보호장치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미시시피와 웨스트버지니아는 학령기 아동을 위한 어떠한 종교 자유 보호 장치도 갖추고 있지 않다.

종교 및 의식 생활에 대해 가장 많은 보호를 제공하는 주는 일리노이, 사우스캐롤라이나, 뉴멕시코, 오하이오, 위싱턴, 메릴랜드, 유타, 델라웨어, 하와이, 애리조나, 노스다코타, 몬태나, 조지아, 아이오와 및 오리건이다. 반면 미시시피, 텍사스, 뉴햄프셔, 웨스트버지니아에는 그러한 보호 장치가 없다.

유진 김 기자

김포, 일산 등 주요 도심 속 단독주택 1년에 1억씩 올랐다

코로나19 등을 거치면서 여가, 워라밸, 쾌적성에 대한 사람들의 니즈가 더욱 늘어나자 주택 트렌드도 발 빠르게 변하고 있다.

집이 단순히 거주하는 공간이 아닌 휴식을 즐길 수 있는 힐링의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확일화된 아파트가 아닌 독립성과 쾌적성을 갖춘 단독주택이 뜨고 있다. 특히 아파트의 편리함은 물론 단독주택의 여유로움을 함께 느낄 수 있는 블록형 단독주택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블록형 단독주택은 도심 외곽에 위치한 보통의 단독주택과는 달리 신도시, 택지지구에서도 중심부 일대, 주요 입지에 위치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환급성이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는 단독주택과 달리 블록형 단독주택은

집값도 빠르게 오르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실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경기 김포 운양동에서 2017년 5월 공급된 L블록형 단독주택은 전용 84㎡의 분양가가 5억 2,000만원이었는데, 2021년 11월 9억 7,000만원에 거래돼 약 4년 6개월 만에 4억 5,000만원이 올랐다. 1년에 1억원씩 오른 셈이다. 또한 경기도 성남 중원구에 2018년 7월 공급된 K블록형 단독주택 단지 역시 전용 84㎡ 분양가 7억 1,900만원 대비 지난해 5월 10억 1,000만원에 거래돼 약 4년만에 3억원 가까이 올랐다.

특히 1군 건설사의 브랜드가 적용 됐을 때 상승폭이 더 두드러졌다. 경기 김포 운양동에서 2017년 2월 공급된 G블록형 단독주택은 전용 84㎡ 분양가 5억 7,600만원 대비 2021년 11월

11억에 거래돼 4년 9개월만에 5억 2,400만원이 뛰었다. 분양가 대비 거의 2배 오른 것이며, 1년에 1억을 초과하는 상승폭을 보인 것이다.

부동산 전문가는 “블록형 단독주택은 일반 단독주택과 달리 대형 건설사의 브랜드도 적용되고, 구도심이 아닌 신도시나 택지지구에 위치해 희소성이 높다”며, “공동주택의 편리성과 도심의 편의성을 모두 갖춘 만큼 1년에 1억씩 오르는 등 시세차익을 기대해볼 수 있고, 임대 수익도 올릴 수 있는 아파트를 대체할 새로운 투자처로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가운데, 1군 건설사 브랜드 ‘힐스테이트’가 적용됐으며, ‘도심 속’ 블록형 단독주택으로 불리는 ‘힐스테이트 양주옥정 파티오포레’가 분양 중으로 관심을 모은다. 현대건설이 책임준공을 맡아 안전한 사업신뢰성을 확보한 단지다.

‘힐스테이트 양주옥정 파티오포레’는 경기도 양주시에서도 중심 주거지로 떠오르는 옥정지구 B5-B10블록에 위치해 있고, 지하 1층~지상 3층, 전용면적 84㎡, 총 809세대 규모의 대단

▲양주 옥정신도시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양주옥정 파티오포레’

지로 지어진다. 단지는 계약금 5% 무이자 대출 지원, 중도금(50%) 안심 확정금리 4.5%(이자후불제)를 적용해 입주 때까지 비용 부담을 낮췄고, 분양권 전매도 가능해 투자가치가 높다.

힐스테이트 양주옥정 파티오포레는 ‘도심 속’ 블록형 단독주택에 걸맞게 자연환경, 생활인프라를 모두 품은 입지여건을 자랑한다. 독바위공원, 선돌공원, 옥정 생태숲공원이 단지를 둘러싸고 있어 자연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학교, 중심상업지구 등 도심도 가까워 인프라 이용이 편리한 것이다. 인근 옥정중앙공원, 옥정체육공원 등도 가깝다. 인근 대형마트와 쇼핑몰 등으로 접근성도 우수한 만큼 훌륭한

한 채로 손색이 없다는 평이다.

또한 인근에 다수 계획된 교통호재도 단지의 미래가치를 높이고 있다. 내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 중인 서울 지하철 7호선 연장노선이 예정돼 있으며, 최근 창동역 구간 지하화 문제가 해결된 GTX-C노선 사업도 올해 착공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등도 예정돼 있어 프리미엄 상승도 기대된다.

한편, 힐스테이트 양주옥정 파티오포레의 견본주택은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일대에 위치해 있다.

문의: 031-858-9800

힐스테이트 양주옥정 파티오포레

시행/수탁 **모공약실탁** 시공 **현대건설** 시행/위탁 **미래개발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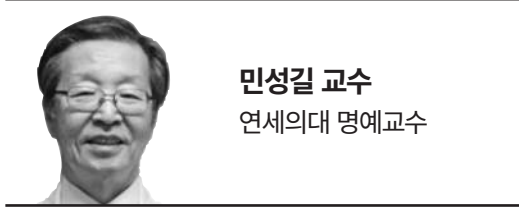
*상기 CG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일부 주종을 보이지 않게 표현하였습니다. *본 자료에 기재된 개발 계획은 관련 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으며, 이는 대행사, 시행사 및 시공사와 무관합니다.

견본주택 개관중

(견본주택 :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101-4)

031)858-9800

동성애자는 많은가?



민성길 교수
연세대 명예교수

크리스천이 본 섹슈얼리티

일반 인구 중에 동성애자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정확히 조사하기 힘들다. 무엇보다 동성애자들이 자신들을 숨기려 하기 때문이다. 또한 조사 대상을 어떻게 선정하는지, 질문방법을 어떻게 하는지, 또는 동성애를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오기 쉽다. 또한 레스비언들은 성적 끌림이 없어도 성교할 수 있기 때문에 이성애자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

다구나 “동성애 행동”(대개 항문성교, 구강성교 또는 상호자위)과 동성애자로서의 “정체성”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그것은 이미 1948년에 출판된 킨제의 《동성애 척도》라는 개념에서 시사되고 있다. 《동성애 척도》는 성지남을 전적인 이성애자와 전적인 동성애자 사이 7단계의 스펙트럼으로 구분하고 스스로 평가하게 하는 척도였다. 킨제이는 연구 결과, 연구대상 중에 일생동안 한 번이라도 동성애 경험을 한 사람이 남자 37%, 여자 13%에 달한다고 하였다. 이들 모두가 “동성애자”는 아니다. 반면 전적인 동성애자는 4%였고, 적어도 지난 3년간 다소간 전적으로 동성애를 하는 사람은 10%라 하였다. 이런 데이터는 일반인들로 하여금 동성애자들이 예상보다 많구나 하

는 충격에 빠트렸다.

이후 동성애자들은 대중을 향해 동성애자는 인구의 10%라고 반복 말하여, 이후 항간에 동성애자가 인구의 10%라는 “신화”(10% myth)가 퍼졌다. 이런 홍보활동은 동성애자 수가 많으므로 동성애가 사회문화적으로 용인될 수 있다는 암시를 준 셈이 되었다. 그러기 위해 킨제이가 의도적으로 조사대상에 동성애자나 장부나 죄수나, 자원자들을 많이 포함한 것 아닌가 하는 오해를 받는다.

한편 1973년 동성애가 “정상화”된 이후 오히려 동성애에 대한 과학적 연구들이 진행될 수 있었다. 그리하여 동성애에 대한 불편한 진실들이 밝혀지고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동성애자가 킨제이 보고서 만큼 많지 않다는 사실이다. 즉 현재 서구에서 전체 인구 중 게이는 2-4%, 레스비언은 1-2%로, 도합 인구의 2% 내외로 보고 있다.

역시 미국에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몇몇 소규모 연구들에 이어, 1994년 전국여론조사센터(NORC)가 실행한 대규모의 “국민 건강과 사회 생활 설문조사”가 있었다. 여기서 동성애를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따라서, 또 응답자의 성별에 따라, 동성애 빈도가 대략 1%에서 9% 사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적 지남의 3가지 상태(끌림, 행동 및 정체성)에서 모두 전적인 동성애자는 남자 0.6% 여자 0.2%였다.

2003년 미국 대법원에서 the Lawrence vs. Texas case (통칭 the Texas sodomy case) 재판이 있었다. 이때 동성애를 옹호하는 31개의 단체들이 합동으로 동성애를 옹호하는 amicus curiae를 제출하였다. 여기서 그들은 당시까지의 연구들

을 종합한 결과, 남자의 2.8%, 여자의 1.4%가 자신들이 게이, 레스비언, 또는 양성애자의 정체성을 가졌다고 하였다. 또한 남자의 0.9%, 여자의 0.4%가 18세 이후 전적으로 동성애 파트너만 가졌다고 하였다.

2006-2008년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서 실시한 전국 차원의 조사에서 동성애자의 빈도는 1.4%, 양성애자의 빈도는 2.3%였다(트랜스젠더 포함하면 3.8%).

2010년 화이트헤드가 1988년부터 2010년 사이의 연구들을 종합한 결과, 동성애 빈도는 게이 약 1%, 레스비언 약 0.6%, 전체 약 0.8%이다. 또한 남성 양성애자와 게이를 합하면 약 2.9%이고, 여성 양성애자와 레스비언을 합하면 약 1.8%이고, 전체 약 2.4%였다.

2014년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CDC)에 의하면 18세 이상 남녀에서, 동성애자는 1.6%이고, 양성애자는 0.7%로, 전체 2.3%였다.

그리하여 킨제이 보고서의 동성애 빈도는 과장되었다는 비판이 나타났다. 이에 대해, 킨제이 옹호자들은 킨제이는 분명히 “남자의 4%, 그리고 여자의 2-3%가 평생에 걸쳐 동성애로 산다”고 말하였다고 변명하였다. 그러나 이 숫자마저도 이후 새로운 자료에 의하면 너무 높게 본 것이다.

청소년들의 경우 동성끌림을 보고하는 비율이 15% 정도라고 하나,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면 2.8%로 줄어든다. 그런데다 사춘기를 끝내면서 자신이 동성애자라고 밝힌 청소년들 대부분은 이성애자라고 생각을 바꾼다. 즉 성지남은 유동적(fluid)이다.

역학적 연구에 의하면 서구의 경우 동성애자들

은 젊은이들에게 많고, 젊은수록 양성애자가 많고, 농촌지역보다 도시에 많고, 이성애자들에 비해 교육수준이 높다. 경제적으로도 동성애자들이 이성애자들보다 수입이 더 많다.

이런 역학 연구들의 합의하는 바는 무엇일까?

① 동성애 옹호자들은 동성애자가 사회에 많기 때문에 그들을 비정상적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싶어한다. 그러나 사람 수가 많다고 해서 비정상이 정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② 어느 정도 동성애를 빈번하게 해야 동성애자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 있다. 상당수가 동성애자라고 하면서 이성애도 하고, 이성애자도 가끔은 동성애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동성애 척도》의 스펙트럼 개념은 성지남에 유동성(fluidity)이 있음을 암시한다. 유동성은 청소년은 물론 성인에서도 나타나며 특히 레스비언에서 더 자주 나타난다. 유동성 인정은 중요하다. 동성애가 유동적이라면, 동성애가 타고난다고 말하기도 어렵고, 또 전환치로도 가능하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이다. 킨제이도 실제로 자기 나름의 방법으로 동성애 전환치료를 시도한 바 있다 한다.

③ 동성애(homo-sexuality)는 동성간 사람이 나 우정이 아니라, 동성간 섹스를 말한다. 동성을 마음으로 사랑하고 같이 지내고 싶어해도, 성적 끌림과 성교 행위가 없으면 동성애가 아니다. 따라서 최근의 동성애 관련 조사연구들은, 정의가 애매한 “동성애자”를 연구 대상으로 하기보다 “동성애 행위”를 연구대상으로 하는 수가 많다. 이로써 혼란스런 양성애의 정의 문제도 파할 수 있다.

④ 남녀차이, 성별 차이, 거주지 그리고 교육과 경제 수준 등에 따른 차이 등등은, 동성애 원인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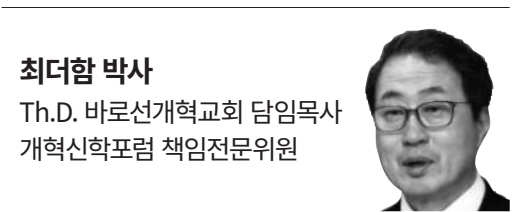
선천성이라기보다 “환경의 영향” 때문임을 시사한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동성애 이슈가 신문, 영화나 드라마, 또는 토크쇼 등 미디어에 자주 등장함으로, 동성애 행동의 빈도를 높이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게 한다. 눈에 자주 띄면(visibility) 익숙해지고, 그러면 동성애가 정상적이라는 인상을 주며,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동성애를 시도하게끔 영향을 미칠 수 있다.

⑤ 100% 동성애자들에게 이성과의 섹스가 전혀 불가능할까? 적어도 킨제이의 스펙트럼의 개념을 따르면, 아니라고 본다. 동성애자는 “본능적으로 타고난 이성애의 능력”을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성을 향해 (orient 지남) 나타내지 않고, 동성으로 향하게 된 사람인 것이다. 프로이트의 언급대로 그들에게 이성애의 능력이 잠재되어 있다.

현대 사회에서 성지남 문제가 더욱 복잡해진 것은, 얼마전 무성애(asexuality)가 성지남의 하나로 등장한 사실 때문이다. 더구나 최근에는 범성애(pansexuality), 트랜스젠더나 쿼어를 향한 성적 지남(skoliosexuality 등등) 같은 더 과이(queer)한 개념들이 속속 다수 등장하고 있다. 성지남과 섹슈얼리티에 관련된 상황은 매우 혼란스러워져 가고 있다.

반복 말하거니와, 우리 크리스천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남녀로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축복하시었음을 믿는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도시화와 “진보적 교육” 등 환경의 변화에 따라, 성에 대해 진지하기보다, 점점 더 제멋대로, 점점 더 흥미와 쾌락 위주로 생각한다. 그릇에 비자연적이고 비생산적인 섹슈얼리티가 전파되고 있다. 인류의 미래가 우려스럽다.

구원론: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4)



최덕합 박사
Th.D. 바로선개척교회 담임목사
개혁신학포럼 책임전문위원

4. 결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어떤 일을 하면서 ‘확신’(assurance)보다 더 큰 애너지는 없습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건너가는 다리가 안전하다는 확신이 없는 사람은 두 다리를 떨면서 두려워할 것입니다. 대개 고소공포증이나 비행기 타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비행기가 안전하다는 사실보다 비행기 추락을 먼저 떠올림으로 극심한 불안증세를 가지는 것입니다. 확신이 없다는 것은 긍정적인 요소보다 부정적인 요소를 먼저 생각하거나 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행기가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현저히 사고율이 낮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비행기를 안심하고 타

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이 받은 구원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일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하심에 따라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잃어버릴 가능성은 전무합니다. 한편으로 이 확신은 우리는 절대로 이전처럼 방탕하거나 타락한 사람을 살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발전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에 대한 확신은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도와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굳센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 벰후 1:3-4의 말씀이 이를 증명합니다. 이 확신이 있기에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더욱 보람있게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써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앞으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벰후 1:3-4)

그러므로 잠시 확신에서 멀어져 있다 해도 두려워 마시길 바랍니다. 특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다 해도 하나님은 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떠나시거나 버리시거나 외면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당신이 잠시 구원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길에 들어섰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기어이 당신의 손을 붙잡고 당신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견인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결코 헛된 기대가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서 당신의 사랑을 몸소 실천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신의를 저버렸음에도 그들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사랑을 고백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이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가리킵니다.

“그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

된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아람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져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리라”(롬 11:26-27)

특히 호세아사에는 패역한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 묘사되었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11:8)

“내가 저희의 패역을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라”(14:4)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당신은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고 의심하는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 여러 사정으로 곤란함과 고통스러운 일을 맞이하여 마음이 불안하고 외롭고 힘들고 짜증나고 화가 나고 죽고 싶은 마음까지 들 정도로 힘들어 하십니까? 아니면, 자신이 생각해 보아도 “나는 너무 죄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자신이 없어”라며 주눅이 들어 계십니까?

그래도 당신이 숨을 쉴 수 있는 여력이 남았거

든 지금 즉시 성령님께 간구하세요. 성령님은 당신이 마지막 있는 힘을 다해 성령님을 찾기를 기다리십니다. 성령님은 이런 간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우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롬 8:26)

그러므로 구원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구원을 굳게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의 가르침으로 이 교훈을 되새기면서 말씀을 매조지 합니다. 이 말씀에 따라 이번 주에는 특별히 구원에 대한 확신이 모든 성도님들에게 배가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벰후 1:10-11) <계속>

세상에 행복을 **水** 놓다.

World Top K-water

물로 더 행복한 세상!
한국수자원공사가 국민감동을 위해 거듭나겠습니다.

 **환경부** | **K water** **한국수자원공사**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의 반성경적 조항들의 문제점

류현모 교수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분자유전학·약리학교실



과거 한 집회 참석자들이 제4차 NAP 초안을 규탄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기독일보DB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하, 인권 NAP)은 5개년 단위의 범국가적 종합계획이며 인권의 법적 보호 강화와 제도적 실현 증진을 목표로 표방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법무부가 추진 중인 제4차 인권 NAP에는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거스르는 많은 독소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사람의 성별 기준을 생물학적 성(sex)에 기반한 양성평등(sex equality)이 아니라, 사회적 성(gender)에 기반한 양성평등(sex equality), 즉 다양한 성을 받아들이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현행 헌법에 어긋날 뿐더러 잘못된 인권으로 양성질서에 근거한 우리나라 사회질서의 간간을 흔들 수 있다. 4차 인권 NAP 안이 발표되자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전국연합(진평연), 전국학부모연합, 수도권 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 등 많은 기독교 단체가 여기에 포함된 젠더 이념 강화, 차별금지법이나 학생인권조례에 포함된 나쁜 요소들(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차별금지)의 삭제를 촉구했다.

김대중 대통령 재임 중인 2001년 “유엔 인권 조약기구”의 권고를 받아들여, 국가인권위원회가 창설되었다. 유엔의 부설기구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기반으로 노무현 정부 임기 마지막 즈음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 NAP 제정을 권고했고, 이에 따라 정부는 1차 인권 NAP (2007-2011)를 제정한다. 이후 5년마다 2차(2012-2017), 3차(2018-2022) 인권 NAP가 제정되었고 이것은 국

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따른 것이었다. 지난 정권 때 제정된 3차 인권 NAP에서는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의 차별금지차 강조된 정책이 정부에서 강력하게 시행하도록 계획되어 지난 5년 동안 정부 각 부처의 정책에 깊이 뿌리를 내린 상태이다. 사실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에도 없는 기관이며, 인권 NAP 작성은 법적 근거도 없이 행해지고 있다.

인권 NAP는 법무부 장관이 의장이 되고 정부 각 부처의 차관들이 위원으로 모인 ‘국가인권정책협의회’에서 정부 각 부처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의 계획을 수립 확정하는 것이다. 4차 인권 NAP는 올해 12월 협의회에서 확정 시행될 예정이다. 전 정부에서 구성된 전문가들과 그 위원회의 의견에 의존하여 만들어진 것에 3차 NAP와 별 차이 없이 성 혁명 이념의 집행을 각 부처가 계획하고 있다. 기독교계가 “포괄적차별금지법” 입법을 반대하고,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요구했던 것은 그 속에 포함된 반성경적인 성적자기결정권,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대한 차별금지조항을 반대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로 법률과 같은 효력을 내

는 행정부의 명령인 대통령령, 총리령, 각 부령 속에 그런 내용들을 넣겠다는 계획이 인권 NAP라는 점은 일반인들이 잘 모르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22년 8월 작성하여 정부에 보낸 권고에 따라 각 부처가 마련한 안을 살펴보면 1) 여성가족부의 성평등 문화 실질화, 성인지(다양한 젠더 인정) 정책 추진 기반 마련, 성평등 미디어 교육 및 캠페인, 다양한(동성혼, 동거) 가족 인정 2) 문화체육관광부의 성평등(양성이 아닌, 그래서 다른 젠더 포함) 문화콘텐츠 실천 확산, 청소년 초기 성교육(성적자기결정권); 3) 법무부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합리적 의견제시, 인권정책기본법안 마련; 4) 방송통신위에 (동성애·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 비하, 혐오 표현 방지; 5) 경찰청 규칙에 잘못된 성평등, 인권정책 수립이나,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유엔산하 인권기구의 잘못된 인권 기준이 경찰에 교육되도록 하는 규정, 외부개방형 인권정책과 제도 신설(인권단체가 경찰을 제어하려는 시도); 6) 보건복지부에 임신 중절 관련 법 정비, 중절 약품 허용, 유니버설 디자인(성중립 화장실 설치); 7)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다양한 인권단체 지원, 등의 문제점을 가진 내용들이 제4차 인권 NAP 속에 들어있다.

제4차 인권 NAP가 현재 발표된 안의 내용대로 확정되면, 성 혁명 이념의 잘못된 인권 개념을 포함하는 여러 개의 법이 동시에 통과되어 5년간 시행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발휘한다. 따라서 4차 인권 NAP가 이대로 확정되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하고, 이미 밝혀진 반성경적 요소들을 제거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되도록 해야 한다.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사회의 가장 큰 비극은 약하고 나쁜 사람들의 거센 외침이 아니라, 선한 사람들의 소름끼치는 침묵이다.”라고 했다. 우리의 침묵으로 현실을 더 비극적으로 만들면 안된다. 주변에 알아야 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 통해 의사를 표현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은 사소한 현안들에 휘둘리지 않고, 근본적 해결책을 선택하여 국면을 전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금의 성 혁명적 문화를 성경적 문화로 되돌리자면, 가정과 교회를 약화시키는 이 문화의 뿌리가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드러난 현상이 아닌 문제의 근원을 볼 수 있는 깨어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영역에서 일어나고, 성경적 가치수호를 위해 서로 힘을 합쳐야 한다. 이들이 서로 연결되어 연합하고 지혜를 공유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집으로 지어져 갈 때 큰 힘을 발휘할 것이다. 기독교를 공격하는 세상의 문화로 인해 그리스도인들이 깨어나고 하나가 된다면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것이다. 세상으로부터 공격만 받던 상황을 역전시켜 복음의 문화를 전파하는 목소리가 연합되고 커질 때 우리 사회는 회복될 것이라 믿는다.

社 說

가장 ‘제7문서’에 쏠리는 우려의 시선

지난 9일 열린 한국기독교총장모회(기총) 실행위원회에서 9월 총회에서 격론이 일었던 ‘제7문서’의 수정안이 통과됐다. 그런데 총회 임원회가 내놓은 수정안에 그간 논란이 된 ‘성적 지향’, ‘성 평등’ 용어가 삭제됐음에도 교단 내 동성애 반대진영이 환영이 아닌 우려의 뜻을 표한 사실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가장 소속 목사 176명과 장로 231명으로 구성된 동성애·동성혼반대대책위원회(대책위)는 실행위 직후에 발표한 성명에서 ‘수정안’의 문제점을 짚었다. 이들은 ‘성적 지향’ ‘성 평등’ 용어가 삭제된 건 당연하다면서 그 대신 ‘성적인 쟁점’이 공동의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문구가 첨가된 부분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런 표현이 장차 교단 내에 갈등의 불씨가 될 것을 우려한 것이다.

‘제7문서’와 관련한 논란은 9월 가장 제108회 총회에서 정치부가 ‘성적 지향’, ‘성 평등’ 용어가 들어간 문서를 내놓는 데서 발단이 됐다. 해당 문서 채택 여부를 놓고 격론이 거듭되자 총회는 임원회로 하여금 분안을 수정토록 한 후 실행위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교통정리 했다.

그런데 지난 9일 실행위에 상정돼 격론 끝에 통과된 ‘수정안’이 다시 논란을 야기하는 모양새다. 임원회가 내놓은 안에 ‘성적 지향’과 ‘성 평등’ 용어가 삭제된 대신 ‘제108회 총회에서 성적 지향·성평등’이라는 단어가 논쟁이 되어 성적인 쟁점으로 바꾸었다는 각주가 첨가됐기 때문이다.

총회의 위임을 받는 임원회로서 이 문제와 관련해 교단 내에서 첨예한 찬반 논란이 있었다는 걸 있는 그대로 적시한 것일 수 있다. 그러나 동성애 반대진영에선 이를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교단 총회에서 문제가 돼 임원회가 ‘수정안’을 다시 내놓기로 한 이상 논란이 된 ‘성적 지향’과 ‘성 평등’ 용어만 삭제하면 된다는 게 동성애 반대진영의 주장이다. 그런데 굳이 ‘성적인 쟁점’이란 표현을 삽입함으로써 문제를 봉합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갈등을 야기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임원회가 이렇게 할 만한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란 의심을 가두지 않고 있다.

임원회가 ‘수정안’에 삽입한 ‘성적인 쟁점’이란 표현은 이를테면 ‘자신의 성적인 견해가 옳다고 서로 다투는 중심 사항’이라는 말이라는 뜻이다. ‘성적 지향’과 ‘성 평등’이란 용어를 넣어선 안 된다는 쪽이나 반드시 넣어야 한다는 걸 가지고 양측의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논란 자체를 객관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논란 자체를 공식문서에 기록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다. ‘제7문서’의 내용에 동

성애를 지향하는 표현이 들어간 것이 총회에서 제동이 걸렸다면 이걸 빼면 간단히 문제가 해결될 것을 굳이 양시론(兩是論)적인 입장의 표현을 첨가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점이다. 그것이 동성애를 지지하는 진영의 입지를 터주는 결과가 된다면 두고두고 불씨가 될 수도 있다.

대책위는 실행위에서 임원회가 내놓은 ‘수정안’ 그대로 통과되자 동성애를 지지그룹에서 절반의 실패이자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동성애 지지그룹에선 ‘제108회 총회에서 성적지향·성평등’이라는 단어가 논쟁이 되어 성적인 쟁점으로 바꾸었다는 각주가 첨가된 것에 대해 “역사화·현재화”라는 긍정적인 의미로 평가했다.

가장 총회가 만든 ‘제7문서’는 ‘교단 내역사 7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탄생한 일종의 ‘선언문’ 성격이다. 지난 20년간 교단 내부에서 심혈을 기울여 만든 교단의 정체성을 집대성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중요한 문서에 ‘성적지향’, ‘성 평등’ 등의 용어가 들어간 건 그동안 가장이 걸어온 노선과 무관하지 않다. 다만 이런 용어가 총회에서 논란이 돼 수정 과정을 거쳤다는 건 가장 내부에서 변화의 바람이 일기 시작했다는 징조로 해석될 수 있다.

가장이 교단 내부에서 이런 갈등이 표출되는 건 한국교회 주요 교단이 ‘차별금지법’ 반대를 천명한 것과는 결이 다른 길을 걷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가장 총회는 한국교회 교단 중 가장 진보적인 교단으로 분류되면서도 그간 동성애와 관련된 이슈들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해 왔다. 그런 분위기에서 교단 내 교회와 사회위원회가 지난 7월1일 ‘포괄적 차별금지법’ 지지의 글을 총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자 교단 교회와 성도들이 거세게 반발하며 정정을 요구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가장 헌법 신앙고백서(제3장 인간과 죄 2. 남녀)에 의하면, 가장 헌법 신앙고백서(제3장 인간과 죄 2. 남녀) 어디를 봐도 ‘성적 지향’과 ‘성 평등’이 끼여들 자리가 없어 보인다.

사실 교단의 ‘제7문서’에 담긴 “성적인 쟁점”이란 표현은 교단의 복잡 미묘한 심경을 대변해 주는 측면이 없지 않다. 다만 이것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교단의 다양한 접근 방식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더라도 만약 동성애를 인정하는 의미로 여겨진다면 앞으로 교단의 내부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교단 헌법과 교단의 정체성이 담긴 선언문의 상대적 과리는 교단의 미래 뿐 아니라 한국교회에도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KDIC 예금보험공사



희망이 담긴
당신의 예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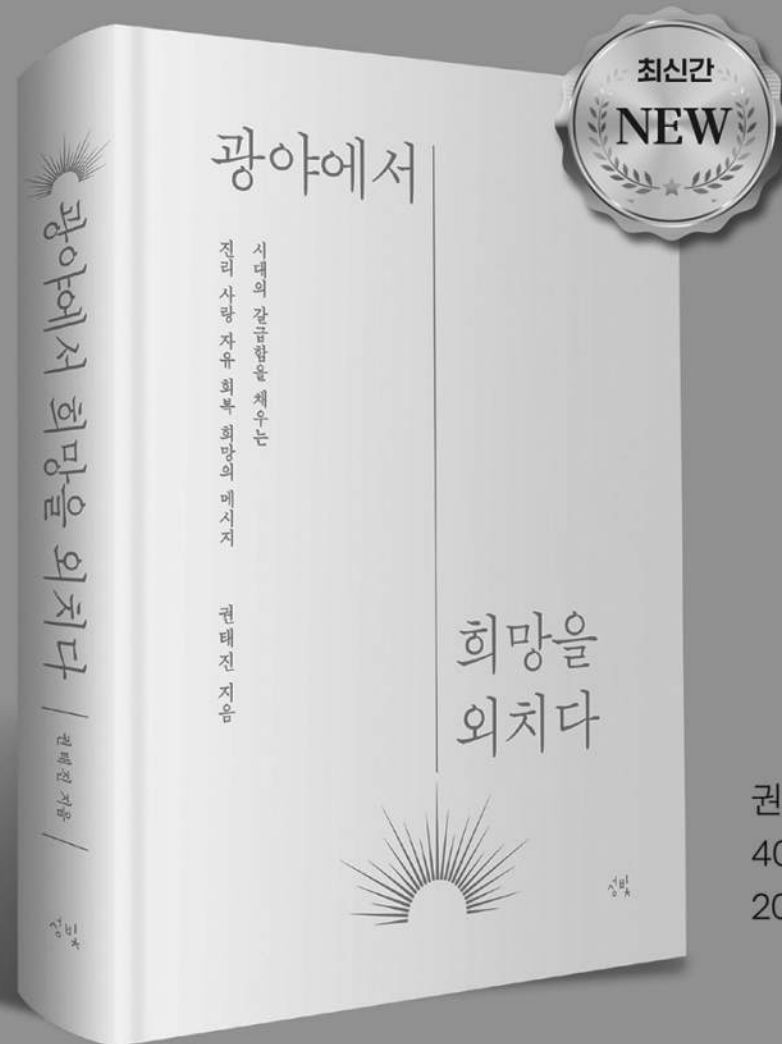
예금보험공사가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해 드립니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1인당 최고 5천만 원까지 예금의 지급을 보장해 예금자를 보호합니다

성명서, 칼럼, 논평 등 언론에 게재된 송암 권태진 목사의 글 모음집
대한민국 현대사 30년을 정리한 ‘역사 교과서’이자 ‘역사 지침서’

광야에서 희망을 외치다



권태진 지음 | 170x240mm(양장)
400쪽 | 33,000원 | 성빛출판사
2023년 10월 15일 발간

“국가를 위해 쓰신 일기장”
이훈근 박사 _ 국제정치학자

“광야에서 외치는, 희망과 회복의 메시지”
장종현 목사 _ 백석대학교 총장

“진리의 기적 소리”
정인찬 목사 _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총장

“변함없이 진실한 시대의 사명자”
정서영 목사 _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성경적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책”
김만형 목사 _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 총회장

“빛을 잃지 않는 깊은 울림”
권영해 장로 _ 전 국방부 장관

“복음에 뿌리를 둔 광야의 외침”
문성모 목사 _ 전 서울장신대 총장

“고뇌와 호소가 담긴 믿음의 유산”
서헌제 교수 _ 한국교회법학회장

“거룩한 성도들이 지향해야 할 좌표”
남진석 설립 이사장 _ 글로벌선진학교그룹

“말씀을 기준으로 한국 사회를 진단하는 책”
박명수 교수 _ 한국정치외교사학회 회장

“통찰과 사색이 담긴 글”
임태희 _ 경기도교육감



저자 : 송암(松巖) 권태진

저자는 1978년 10월 15일 천막 하나로 교회를 세운 군포제일교회의 담임목사이다. 성도들과 신령한 가족이 된 그의 사역을 보고 사람들은 아버지목회라 불렀고 끝없는 사랑의 돌봄을 어미목회라 칭했다. 그는 한국 교회의 본질 회복과 연합 운동을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늘 순종하며 섬김으로 낮아지는 목회자이다. 예장 합신 총회장,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대표회장,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등 총회와 연합기구의 수장으로 지역, 교단, 교파를 초월해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되는 운동을 계속해왔고 월남전(베트남) 참전용사로서 피 끓는 애국심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쉬지 않았다. 그는 ‘송암’이란 호를 가진 시인이기도 하다. 1994년 문예사조를 통해 시인으로 등단했으며 국제PEN회원, 한국문인협회원으로서 열여덟 권의 시집, 열두 권의 설교집, 열세 권의 에세이 등 총 44권의 저서를 집필했다. 한국찬송가개발원의 이사장으로서 찬송 작사가로도 활동 중이다. 그는 ‘오직 예수님이 희망’임을 삶으로 전하며 쉬지 않고 영원한 나라를 향해 달려간다.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 BIRMINGHAM THEOLOGICAL SEMINARY 목회학 박사(D. MIN.), LOUISIANA BAPTIST UNIVERSITY 명예철학박사(PH. D.),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명예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사단법인 성민원의 이사장이며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96회 총회장, 한국장로교총연합회 30대 대표회장, 한국교회연합 8·9대 대표회장 등을 역임했다.

부동산

서울 강서구 단독교회매매

-소재지: 서울 강서구 화곡동
-연면적: 279.8(평)
-건축규모: 지하 2층~ 지상4층
-매매가: 27억

연락처 ☎ 010-4621-6428

경북 포항 교회 매매

-소재지: 포항시 북구 청하면 청진리
-대지면적(건축면적): 총 212.35평
-매매가: 3억 3천

연락처 ☎ 010-6780-0467

전북 전주시 완산구 교회매매

-소재지: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면적: 대지면적 460평
-주차대수: 약 50대
-매매가: 15억원 (용자 8억)

연락처 ☎ 010-3672-0680

부천교회매매

-소재지: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부근
-면적: 대 423㎡ / 건 364㎡
-매매가: 22억

연락처 ☎ 010-9924-7571

대구 개척교회 임대

-소재지: 대구 달서구 한실로6길130
청솔빌딩402호
-면적: (약40평)엘리베이트 가동중
-해당층수: 4층
-임대료: 3000/월88만원(부가세포함)

연락처 ☎ 010-7506-1009

성남 분당구 서현동 교회임대

-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면적: 330평
-임대료: 30,000 / 1,800만원
-시설: 주차장, 엘리베이터, 로비

연락처 ☎ 010-3702-3251

서울 노원구 교회임대

-소재지: 서울시 노원구 월계동
-건물면적: 146㎡(44평)
-임대료: 2,500/ 90
-시설비: 300만원

연락처 ☎ 010-3899-1626

경기 수원시 교회임대

-소재지: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매물면적: 86평(5층 건물 중 지하)
-임대료: 보증금1000만원/ 월세89만원
(부가세 및 관리비10만원 포함)

연락처 ☎ 010-3283-4047

경남 양산시 찬양산 기도원 매매

-소재지: 경남 양산시 어곡동
1981번지(대지)외 2필
-면적: 총 3필지 약 1만평.
-매매가: 6억 (대출1억 별도)
-주차: 30대 가능

연락처 ☎ 010-6208-3698

부산교회매매

-소재지: 부산 기장군
정관 신도시 부근
-면적: 대 208㎡ / 건 146㎡
-매매가: 5억

연락처 ☎ 010-6707-1374

양평교회매매

-소재지: 경기도 양평군
-면적: 대 552.07㎡ / 건 191.74㎡
-매매가: 3억 5천

연락처 ☎ 010-9218-4375

인천시 교회임대

-소재지: 인천시 서구 검암동 부근
-면적: 건 132㎡
-임대가: 1000/88
-시설비: 800만원

연락처 ☎ 010-2510-0769

경남 창원시 교회매매

-소재지: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부근
-면적: 건 215㎡
-임대가: 3000/66(시설비 1500만원)

연락처 ☎ 010-9363-1400

성남/판교 교회부지매매

-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판교대장 부근
-면적: 1112㎡ (336평)
-매매가: 66억

연락처 ☎ 010-5423-0159

신문 공고

상속한정승인공고

망 천영실(520607-2*****) 2019.5.30. 사망
최후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경화시장로45번길 14 (경화동)
민법 제 1032조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65조의2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공고일로부터 2개월 내에 채권 또는 수 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 사건번호: 2023년단319 상속한정승인(부산가정법원)
◎ 한정승인수리(심판결정)일: 2023. 6.26.
◎ 청구인: 천영철
◎ 공고기간: 2023. 11. 13. ~ 2024. 1. 13.
◎ 신고처: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경화시장로45번길 14 (경화동)

2023. 11. 13.

상속한정승인공고

망 조연남(281105-2*****) 2019. 1.8. 사망
최후주소: 순천시 송광면 유경길 51
민법 제 1032조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65조의2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공고일로부터 2개월 내에 채권 또는 수 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 사건번호: 2023년단10186 상속한정승인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 한정승인수리(심판결정)일: 2023. 6. 22.
◎ 청구인: 1.이강희 2.이강곤
◎ 공고기간: 2023. 11. 13. ~ 2024. 1. 13.
◎ 신고처: 서울시 양천구 신월로 385, 7층 (신정동, 동진빌딩) 법무법인 강함 변호사 최희진

2023. 11. 13.

상속한정승인공고

망 이미영(570918-2*****) 2020.10.11.사망
최후주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로1길 7 (암사동)
민법 제 1032조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65조의2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공고일로부터 2개월 내에 채권 또는 수 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 사건번호: 2023년단177 상속한정승인(수원가정법원)
◎ 한정승인수리(심판결정)일: 2023.6.20.
◎ 청구인: 이다연
◎ 공고기간: 2023. 11. 13. ~ 2024. 1. 13.
◎ 신고처: 경기도 시흥시 매화1로 61, 111동 501호 (매화동, 하이드파크)

2023. 11. 13.

상속한정승인공고(심판결정)

망 김형민(650220-1*****) 2019.9.1. 사망
최후주소: 서울 성북구 대사관로117길 62 (성북동)
민법 제 1032조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 65조의2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공고일로부터 2개월 내에 채권 또는 수 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 사건번호: 2022년단8518 상속한정승인 (서울가정법원)
2023조가1771 심판결정 (서울가정법원)
◎ 한정승인수리(심판결정)일: 2022. 2.4.
한정승인결정(심판결정): 2023. 6.7.
◎ 청구인: 1.김영규 2.김지현
◎ 공고기간: 2023. 11. 13. ~ 2024. 1. 13.
◎ 신고처: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64, 15층(서초동, 법조타워)

2023. 11. 13.

교회대출안내

2019-경기군포-007

능력 못함이 없는 주님을 바라보며 저에게 주신 능력과 지혜로 목사님의 목회사역에 재정적인 큰 힘이 되도록 (은행근무 경력으로)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 교회담보대출: 교회건물, 상가교회, 성전부지 교회대지 및 건축자금
- * 교회: 연 4.5~6%대 (감정가의 70~80% 대출 가능)
- * 지역 상관 없음 * 성전 구입 자금
- * 타 은행 담보도 가능 * 건축 중에도 가능
- * 현재 대출금액의 30%를 더 받을 수 있음
- * 교회 예배 관경 보지 않음 * 교인수 상관 없음

목사님 ~ !! 망설이지 마시고 전화 주시면 최선을 다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사랑의성전짓기운동본부

선교국장 임요셉 목사

문의전화: 010-9166-5600, 010-8652-5600

TEL: 031-439-5555 FAX: 031-452-5800

<http://www.love-ch.net> E-mail: moon4903012@hanmail.net

화성시 교회 긴급매매

☐소재지: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소재

☐면적: 대지 100평/ 건물 250평
(지하1층~지상3층)

☐매매금액: 280.000 만원

☐용자금: 90.000만원

☐입주가능일: 매매 즉시 목회 가능

*목회자 사택 즉시 입주가능

*복지시설(요양원)동시운영 가능

▶연락처 ☎ 010-5779-2368

종교부지 매각 안내

- ☐ 위 치: 평택시 칠원동 신촌지구내
- ☐ 평 수: 454.7평
- ☐ 금 액: 평당 550만(25억)
- ☐ 건폐율: 50% 용적율: 200%

- 평택시 칠원동 신촌지구 종교부지
- 동문건설 동문굿모닝힐 아파트 5천여세대 독점 종교부지
-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5분거리에 위치
- 5단지(24년 2월입주) 모든 단지 입주하여 신도수 확보 용이
- 쾌적한 공원이 단지내 위치
- 주차장 빌딩 옆 부지로 주차장 확보 용이

● 편리한 교통 인프라

- 1 평택 지체역(SRT) 25km위치 (차량5분)
- 2 평택-제천간 고속도로 송산 IC 바로 앞
- 3 경부 고속도로 안성 분기점 2KM

☎1600-0459/010-3679-2818
현덕디앤씨 대표이사 최용현

유 대 력

탁상용 달력 무 료 보 급

-탁상형 달력 (230x165)
-현재 사용하는 그레고리력 표기
-성경을 연구하는 모든 분들에게 무료보급
-1세기 초대교회 관련도서 6종도 함께 발송
-주문방법: 주소/성함/원하시는 부수/전화번호(꼭 기입)
-비용은 택배비 3,000원만 착불로 부담하시면 됩니다

※ 혹, 택배비가 부담스러우신 분은,
'택배 무료요청' 메시지를 보내 주시면 됩니다

☎010-4009-1611

준엄한 엘리야의 심정으로, 터지듯 피어난 꽃 한 송이
앞에서 기쁨의 눈물을 감추지 못하는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구성지게 읊어낸 책임입니다. 박호철 목사 (창원내산교회)

매일묵상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1)

요5:1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5:2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
5:3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5:4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라]
5:5 거기 서른여덟 해 된 병자가 있더라
5:6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5:7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 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5:8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5:9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본문에 예루살렘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 하는 못에 수많은 병자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신의 병을 낫기를 갈망하며 못에서 물이 움직이는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못에 전설이 있었는데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 때에 못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나를 걸어서 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수많은 병자들은 그 전설대로 물이 움직일 때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리고 그곳 가운데는 38년 동안 중풍 병에 걸려 누워만 있었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38년의 세월 동안 누워만 있었다면 얼마나 그 안에 큰 절망과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38년 동안 한 번도 일어보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이 사람도 지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수많은 병자들과 함께 베데스다 양문 곁 못에서 물이 동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들의 정황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의 정황이 죄 아래 운명 아래 영적으로 병들고 고통하는 이 시대 수많은 영혼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리고 현실에 매여서 움직일 수 없고 돌고 도는 오늘 나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 데 없나니, 병든 자에게 의원이 쓸 데 있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영적으로 병들고 갇혀있는 모습을 자각해야겠습니다. 본문에 소경, 혈기 마른 자, 절뚝발이가 나오는데 우리 안에 이렇게 영적으로 병든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소경처럼 진리에 눈 어두워 어둠 속에 신음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혈기 마른 사람처럼 사랑에 매마르고 사랑에 병들어 고통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절뚝발이처럼 의지가 박약하여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절절매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영적인 병들 그것을 주목해서 보고 오늘 나는 어떤 문제에 걸려있는지 점검하고 거기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수많은 영적인 병에서 나아가 하고 해방되고 극복 되어야 할 모습이 있습니다. 병든 모습이 있는데 우리는 그 병든 모습을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어떤 길을 통해 해결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혹 본문에 38년 된 병자처럼, 베데스다 연못에 있던 수많은 병자들처럼 전설을 따라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는 모습처럼 세상의 방법들, 세상 사람들이 제시하는 길로 기웃거리고 상황이 변화되고 때가 변화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여기저기 동네를 봐도 점점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보다 점점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보았습니다. 아마 경기도 안 좋고 사람들 일이 잘 안 풀려서 그 해답을 여기저기서 찾다가 결국 점점에 가서 소위 신령하다는 사람들에게 자문을 구하

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크리스천이라는 사람들도 그런 곳에 간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그런 분 없겠조. 우리가 귀신의 음성,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겠습니다. 힘든 때일수록 일이 잘 안되고 문제가 많을수록 우리는 어디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까?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121:1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121:2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도움이신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임마누엘이신 예수님께 답을 찾아야겠습니다. 힘들고 답답하고 문제가 많을수록 기도로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동안 해결되지 못한 모든 문제들에 대한 답을 찾으시고 인생에 단행된 문이 활짝 열리는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오늘 38년 동안 누워있었던 병자, 그가 단번에 일어나 걸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가 믿음으로 받고 실행에 옮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행동함으로 변화를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38년 동안 누워있었던 병자에게 다가오셔서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이었나? 그 말씀을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계속>

서광교회 제공

믿음의 열조들을 찾아서 마태

세리 출신의 제자

예수의 제자들은 시몬 같은 열심당원까지 포함될 만큼 구성이 잡다했다. 열심 당은 로마의 지배에 격렬하게 저항한 유대인 집단이었다. 그들이 특히 증오한 대상은 로마를 위해 세금을 징수하는 유대인이었다. 마태가 바로 그런 세리였는데, 그와 시몬이 같은 무리에 속한 것은 자칫 집단이 존속하는 데 큰 장애 요소가 될 수도 있었다. 복음서에 따르면 마태는 예수의 부름을 받았을 무렵 무척 일에 바빴다고 한다. 예수는 마태의 집에서 식사를 함께한 것 때문에 세리나 죄인 같은 사회적 부랑자들과 가까이 어울린다는 비난을 받았다. 그때 예수는 어떤 유명한 말을 남겼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흥미로운 것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그 사람이 레위라고 되어 있다는 점이다. 당시에는 두 개의 이름을 가지는 게 드물지 않았다고 보면 마태와 레위는 틀림없이 동일인이었을 것이다.

전하는 바에 따르면 마태는 신약성서에 처음으로 나오는 복음서를 썼다. 마태복음은 더 짧은 마가복음과 중첩되는 부분도 있지만 다른 내용도 많다. 특히 5-7장에는 성서에서 가장 자주 인용되는 산상수훈이 있다. 마태복음은 구약성서에서 인용한 부분이 다른 세 복음서를 모두 합친 분량보다 많다는 점이 특징이다. 마태는 예수의 생애에 일어난 여러 사건들이 구약성서의 내용을 ‘실현한 것’이라고 보았다. 마태는 아마 유대인 그리스도교도를 겨냥해 복음서를 썼을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육체적·정신적 조상인 아브라함에서 시작되는 예수의 가계를 더듬는 것부터 시작한다. 그 족보에는 유대인들이 매우 존경하는 다윗 왕도 포함된다. 마태가 보기에 예수는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바랐던 메시아였다. 마태는 예수가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유대인들과 만나는 장면을 몇 가지 소개한다. 아마 비유대인도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는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어리석은 것이 아니냐고 말하려는 의도일 것이다. 마태복음에만 있는 이야기도 있다. 현재(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방문하는 이야기, 또 그 사건과 연관되어 사악한 왕 헤롯이 베들레헴의 갓난아기들을 죽이려다 그 명령하는 이야기다. 마태복음은 유대교 지도자들의 위선과 율법주의를 통렬하게 비난한다. 또한 마태복음에서



는 ‘신의 왕국’이라는 말 대신 ‘천상의 왕국’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의미는 같다. 마태복음의 대단원은 부활한 예수가 제자들에게 세계 모든 나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하는 대사명(Great Commission)이다. 복음서 저자인 마태는 그리스도교 미술에 자주 등장한다. 회화 작품에는 복음서를 집필하고 있는 모습으로 나오며, 그의 어깨 너머로 천사가 그려져 있다. 가톨릭교회의 성 마태 축일은 9월 21일이고 오랫동안 바랐던 메시아였다. 마태는 세리였기 때문에 회계원, 장부 기록원, 세리의 수호선인이다. 전설에 따르면 그는 복음서를 파르타이로 가져간 뒤 순교했다고 한다. 예수에 관한 영화에서 마태는 비교적 중요치 않은 역할이다. 하지만 무성영화의 고전 『왕 중왕』(1927)에서 마태는 복음서에 쓸 내용을 메모하는 모습으로 나온다.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는 마태복음의 내용을 가사로 삼아 예수의 십자가 처형을 다룬 합창곡 『성 마태 수난곡』을 작곡했다. 들녘 출판사 제공

NIV 영어성경 따라잡기

Psalm 37:24 NIV

... though he may stumble, he will not fall, for the Lord upholds him with his hand.

- may : '가능성' 또는 '추측'의 조동사
- stumble : 비틀거리다
- will : 예측(prediction)의 조동사
- fall : 쓰러지다, 넘어지다
- for : 접속사, 의미는 because
- uphold : 들어 올리다

(시편 37편24절) 그는 비록 비틀거릴지라도 쓰러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자신의 손으로 그를 들어 올리시기 때문입니다.

카카오톡 | 영어성경 독해 연습



식물로 못고치는 질병은 약으로도 치유되기 어렵다

홍천마를 잘 알면 질병이 두렵지 않다

질병과 건강때문에 아직도 고민하십니까?

홍천마 진액 골드가 있습니다

동의보감에서 극찬한 천마

■ 천마의 종류
국내에 분포하는 천마는 크게 나누어 꽃대색이 적황색인 홍천마와 담황색인 청천마가 있다.
■ 천마의 효능과 신비
천마는 마른하늘에서 떨어지는 마옥(麻木)이라 하여 마비가 되는 증상을 다스린다 하여 하늘 천(天) 마옥의 마(麻)를 더하여 천마(天麻)라 불리 왔으며 예부터 정풍초(正風草)라 불리기도 한다. 정풍초란 이름 그대로 바람에 흔들리는 풀이라는 뜻.
천마는 난초과이며 여러 해 살이 풀로서 자연에 따라 핀다는 있지만 자연산은 5월~6월에 마치 붓대같이 싹이 올라와 작고 흰 꽃을 피우는데 꽃을 피울 때면 그 천마는 이미 속이 비어가고 있는 중이다. 천마는 5월~6월에 싹을 올리고 7월이면 그 싹이 시들고 말라버리기 때문에 자연산 천마는 1개월 정도만 싹을 볼 수 있기에 채취 기간이 짧아 싹이 막 올라오는 시기가 최적의 채취기간이다.
이때 채취하지 않으면서 늦가을에 채취를 하는 것이 통상적이나 늦가을에는 세이 없이 발견하기 어려우므로 전문 약초소들은 그 장소를는 어겨 봐 두었다가 매달 씨를 뿌려 놓았다가 지면 매달을 보고 채취했다.

천마의 색에는 흰이 들어나지 않고 붓대처럼 올라와 작고 흰 꽃을 피우며 그 색도 푸른빛의 색과 분홍색의 홍천마가 있다. 뿌리가 성장했을 시에는 마치 고무마처럼 생겼으며 기로로 일정한 간격의 줄무늬를 나타낸다.

천마는 천마라 명칭하며, 줄기는 적전(赤前) 또는 정풍초(正風草)라 부른다.

천마는 천마루 뿌리에 버섯처럼 종균에 의해 자라는 반 기생 식물이다.

‘천마’는 뇌 질환 계통의 질병에 최고의 신약이며 특약으로 잘 알려져 있다.
고혈압, 동맥, 중풍, 불면증, 우울증, 신경쇠약, 위궤양, 간질, 간경화, 당뇨, 사춘증, 디스크, 백혈병과 각종 암, 발기부전 등에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옛 문헌에 기술된 내용을 살펴보자.
(동의보감)
모든 해(毒)와 어지러운 증세에 천마가 아니면 치료하기 어렵다.(非天麻不)

천마는 두통과 고혈압, 어지럼증에 특효약이라 할 만하다. 어지럼증은 한의학에서 ‘현훈’이라고 부르는데 대부분 간과 신장의 기운이 손상되어 간의 열이 위로 오르고 물 안에 담과 열이 서로 충돌하거나 중 속의 수액이 제대로 흐르지 못하여 생긴다. 몸서리차고 속이 메스꺼우며 구토가 나고 귀에서 소리가 나며 청각이 약해진다. 이럴 때에 천마를 사용한다.

천마는 간장의 열을 내리고 바람과 습기를 없애며 마음을 진정시킨다.

머리가 흐리고 눈앞이 어질어질하여 귀에 소리가 나고 입 안이 쓰여 가름 잘 늘리고 손발이 저리며 손과 발을 잘 쓰지 못하고 팔 다리에 경련이 일어나는 사람한테 특히 효험이 있다. 천마는 신경을 튼튼하게 하여 신경쇠약, 불면증을 치료하며 오래 복용하면 간, 신장, 폐, 대장이 튼튼해지고 심장이 옥 같이 고와지고 머리칼이 까맣게 되고 혈액이 깨끗하게 되어 오래 살게 된다.
30년 동안 깊은 산 속에서 천마를 재배하여 천마의 약성을 연구한 한 노인은 천마는 지금까지 알려진 약성 말고도 청혈(淸血), 해독(解毒), 소염(消炎), 항암 효과가 뛰어나서 사람의 체질을 따라 제대로 쓰이면 허면 거의 모든 질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한다.

■ 천마의 약성과 효능의 요약
□ 피를 맑게 하고, 어혈을 없애며, 담과 습을 제거하고, 염증을 식이고, 간액을 늘리며, 피 나는 것을 멎게 하며, 설사를 멈추고, 독을 풀어 주며, 갖가지 약성을 강화하고 완화하며, 아픔을 멎게 하며, 마음을 진정시키는 등의 작용이 있다.
□ 천마는 다혈과 같은 갖가지 질병에 두루 효험이 있다.
고혈압, 자혈압, 중풍, 반신불수, 뇌졸중, 타박상, 뇌전증, 당뇨병, 간경화, 가스 증후, 농약 증후, 백혈병, 혈우병, 어지럼증, 두통, 귀울림, 치통과 배앓이, 혈액순환이 잘 안 될 때, 크게 놀라는 병, 허반신 마비, 목덜미와 어깨, 전신이 당기고 뻣뻣한데, 자발간, 간염, 어깨가 차가운 증상, 팔다리에 열이 날 때, 손발이 뒤늘리는 데, 심장병, 어린이 간질, 강기름살 과잉증, 좌골신경통, 손발이 반데, 위장병, 정출혈, 어혈, 땀속에 딱딱한 열이 있어 있는데, 골짜기 괴로움, 습진 무좀, 피로증은 누는데, 끝는 물이나 불에 데면, 식욕, 갖가지 암, 종상, 다형성 종반, 마른 버짐, 반비, 설사, 객관, 후두염, 몸이 붓는 데 오로침상 등이다.
이 외에도 근육과 뼈를 튼튼하게 하고 장부를 굳세게 하며 오래 먹으면 기운을 돋우고 체력을 늘리는 등의 효능을 일일이 말로 다 할 수가 없다.

천마는 뇌졸중 골 증후군으로 쓰러졌을 때 천마를 먹이면 신통하다고 할 만큼 효험이 있다.
신로 증후군으로 쓰러져 의식이 없는 환자나 교통사고로 뇌를 상하게 다쳐 이미 병원에서 죽은 것으로 의사의 진단이 난 환자에게 천마를 먹였더니 아무 후유증이 없이 되살아났다는 거짓말 같은 사례가 여럿 있다.
식중독이나 농약중독에도 효과가 뛰어나다. 농약을 치다가 중독되어 쓰러졌거나 농약을 마셔 중독된 데에는 천마를 복용하며, 대개 2~3일이면 깨끗하게 회복된다.
식물열로 뇌수술을 해서 정신이 이상이 되었거나 간질이 온 사람, 허혈성쇼크 등이 마비된 사람, 교통사고로 몸이 마비된 사람, 중풍 후유증으로 몸을 잘 움직이지 못하고 말을 잘 못하는 사람 등도 천마를 오래 먹으면 완치가 가능하다.
(상기 내용은 한의 동의보감에서 발췌함)

목회자분들께는 섬김과 봉사의 마음을 담아 특별선물을 드립니다.

기존가격 (198,000원)에 제품은 기존(1x1=2박스) x 추가 1박스 총 3박스(180포)를 보내 드립니다.

홍천마진액골드는 특산물 3년산으로만 추출제조하여 제품이 아주 탁월합니다.

1SET 가격으로 3SET 드립니다!

1SET + 1SET + 1SET = 3SET
80m 60팩 80m 60팩 80m 60팩 80m 180팩

198,000 + 198,000 + 198,000 = 594,000

공급가액 = ₩198,000 (부가세 별도)

유통마진 확 줄여 소비자에게 돌려드리는 직거래마케팅

우울증, 어지럼증, 만성두통, 귀속의 잡소리 등 이것 저것 다해봐도 아무소용 없으신 분께 혈액순환에 탁월한 홍천마를 강력하게 권장합니다.

B.T.N 홍천마

라파식품 B.T.N

www.hhma.co.kr 부산 연제구 거제동602-7 TEL:051)853-2678

고객/센/터 080-080-2678

국민은행 116601-04-077942 예금주 : 이주영

안녕하세요!

홍천마를 생산하는 라파식품이 하나님의 은혜로 17주년을 맞이 하였습니다. 모두 고객님들의 기도와 성원덕분입니다. 라파식품은 부산 본사의 제조생산 공장을 신설 확장하고, 오직 국내 3년산 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저온 40시간 추출제조 공법으로 신제품 ‘홍천마진액골드’를 제조 공급하고 있습니다.

고객님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종전 제품보다 몇 배나 일등한 품질의 ‘홍천마 진액골드’를 기존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그동안 ‘홍천마(진액골드)’를 복용하신 교역자님, 장로님, 성도님, 수많은 고객님들께서 질병이 치유되고 건강이 회복되어 새로운 삶을 사신다는 체험담과 소식을 접할 때마다 기쁨과 보람을 느끼며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복용하고 싶어도 재정적으로 어려우신 교역자님과 장로님 성도들의 간정에 의하여 봉사하는 마음으로 최저의 가격으로 공급하고자 합니다.

제품유통 비용을 모두 없애고 제조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신소비자 마케팅으로써 1set(한 달분 60포)를 구입하시면 2set을 선물로 더 드려서 총 3set(3개월분 180포)를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가격은 유료수 값이며 결과는 감탄의 찬사입니다.

특별히 은퇴목사님, 장로님께서는 최고의 예우를 하고자 합니다. 천하를 얻고도 건강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식품법에 의하여 효능에 대하여 말할 수 없음이 아쉽습니다.

존경하는 목사님,장로님,성도님!홍천마를 통하여 더욱 건강을 지키시고 혹시 질병으로 고통 받고 있으시다면 ‘홍천마’를 복용해 보십시오. 제대로 후회하지 않으시고 기쁘고 즐거운 체험을 하십시오.

사람은 혈액순환만 잘되면 무병장수한답니다. 식품으로써는 홍천마가 순환기에 최고의 건강식품 인니다.

어느 질병이든 믿으시고 복용해 보십시오. 놀라운 체험과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한글 동의보감편에 보시면 특히 각종 암·중풍·고혈압·당뇨·만성두통·우울증·순환기질환에 홍천마가 탁월하다고 극찬하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라파식품은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으며 모든 성도님의 건강을 위한 기업이 되겠습니다. 많은 기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시민교회(합동) 이현호 시무장로

기독교의 핵심 진리, “환난 자체가 길”이라는 점

키에르케고어를 만나다

고난의 복음 (27)
환난이 길이라고 믿으라!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환난의 길을 싫어한다. 환난이 온다는 것은 인생에서 불길한 징조로 해석하는 경우도 많다. 이런 생각은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이다.

환난이 닥칠 경우, 그 길로 가는 것은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아마 함께 하는 사람들조차 환난이 올 때 계속 전진해야 할지 의문을 제기할 것이다.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일단 가던 길을 멈추고 기도를 시작할 것이다.

하지만 환난이 길인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환난이 제거되면 길이 사라진다. 환난이 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환난의 길’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환난의 길은 마치 길과 환난을 분리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인다. 지금은 환난의 길을 걷지만 언젠가는 환난의 제거되고 탄탄대로가 열릴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나는 지금 이런 길을 제시하려는 것이 아니다.

기독교의 핵심 진리는 “환난 자체가 길”이라는 점이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싫어할 것이다. 지금까지 기도하고 믿었던 믿음의 체계가 아닐 것이다. 환난이 길이라기보다, 환난은 인생길을 걷는 데에 방해하는 장애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믿음 안에서 환난을 대할 때는 정반대로 생각해야 한다. 기존의 갖고 있었던 생각과 개념부터 바꾸라.

환난은 길이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첫째, 환난과 길을 분리할 수 없다는 점이다. 언젠가는 환난이 없어질 것이다? 천만에. 이 길에서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진리의 길을 걷는 자는 언제나 환난을 당한다. 다시 말하지만, 복음이 우리에게 말하듯 그리스도인들은 환난 당할 운명이다(살전 3:3).

둘째, 환난은 길을 막는 장애물이 아니라, 운송 담당자다. 환난이 길이라면, 환난은 그 길을 걷는 자를 어딘가로 인도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환난은 우리를 안내하는 환상적인 팀이다. 환난이 다스



리게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앞으로 진전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셋째, 그리스도인이 환난이 닥친다면, 이것은 불길한 징후가 아니라 올바른 길을 걷고 있다는 최상의 징후다. 그러니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이가 여전히 선생님을 두려워하는 한, 아이는 확실히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그러나 신뢰가 두려움을 내어 쫓고 담대한 확신이 이길 때, 그때 최상의 교육은 시작된다.

환난이 길이라고 확신하면서 고난당하는 자가 환난을 정복했을 때도 마찬가지이다. 왜냐하면 가장 고차원적 의미에서, 환난이 길이고 조력자라고 믿기를 원하는 것은 환난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복음에 의하면, 믿음은 세상을 이긴다고 말한다(요일 5:4). 하지만 다른 곳에서는 우리가 정복자보다 더 크다고 말한다(롬 8:37).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정복자보다 더 큰가?

싸움이 시작되기 전에, 적을 자신의 천구로 바꿀 수 있다면 그렇다. 환난 중에 정복해야 하는 것은 한 가지가 있다. 곧 환난이 자신의 적이라고 지속적으로 생각하는 동안, 사람이 적을 정복하는 것처럼 환난을 정복하는 것이다.

그러나 환난이 자신의 친구라고 믿는 것은 정복하는 것보다 크다. 환난이 반대자 아니라 길이라고 믿는 것, 환난이 방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발전시키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 환난이 낙담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품격을 높여 주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은 정복하는 것 그 이상이다.

우리는 또한 이것으로부터 환난이 무언가로 인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환난 외에 다른 어떤 것이 길이 무언가로 인도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으나, 이것이 이 길에 따라오는 어떤 반대로서 나타날 수 없다면, 그때 물론 이 길은 영원히 무언가로 인도해야 한다.

광장하다! 환난의 길이 어떤 장애물도 없는 유일한 길이라니! 왜냐하면 길을 막는 대신에 환난 자체가 길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환난은 탄탄대로다! 이것은 얼마나 기쁘는가!

나그네가 “거기에는 더 이상 길이 없어”라고 말해야 하는 것보다 더 절망적인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그리고 방향하는 사람이 “여기에 항상 길이 있어”라고 감히 언제나 말을 하는 것보다 더 기쁜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환난은 초인적인 것이 아니다. 환난이 초인적인 것이라면, 그때 길은 막힐 것이고 환난은 길이 아닐 것이다. 사도 바울은 말한다.

“인간적인 것을 제외하고 어떤 시험도 여러분들과 부딪힌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시험을 감당할 수 있도록 시험과 함께 피할 길도 주십니다(고전 10:13).”

그러나 하나님께서 환난 자체가 길이 되도록 영원 전부터 시험을 마련하셨을 때, 하나님은 시험을 견딜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아닌가! 그때 환난은 최종적으로 완전히 견딜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환난 자체가 피할 길이 되는 것보다 시험을 피할 수 있는 더 좋은 길이 있다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는가! 왜냐하면 그때 환난 자체가 언제나 피할 길이 되고 환난을 피하는 좋은 길이 되기 때문이다.

초인적인 시험은 사람에게 쌓이게 될 것이다. 히말라야 산을 생각해 보라. 마치 등산객을 절망에 빠지게 하는 가파른 산처럼, 초인적인 시험도 고난당하는 자를 놀라게 할 것이다.

초인적인 시험은 시험의 크기와 비교하여 그를 설설 가는 자로 바꾸어 버릴 것이다. 자연의 힘이 사람의 노력을 조롱하듯, 초인적인 시험도 가없는 고난당하는 자를 조롱하는 것처럼 자랑하며 거만하게 으스스하며 걸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라! 거기에는 어떤 초인적인 시험도 없다. 거기에는 그 일에서 벗어나고 싶은 겹쟁이가 발명한 거짓된 우화만이 있을 뿐이다. 거기에는 시험을 확대시킴으로써 죄책감을 최소화시키고 싶은 겹쟁이들의 발명품만 있을 뿐이다.

다시 말해, 거기에는 그 시험이 초인적인 시험이 되게 함으로써 자신을 정당화하고 싶은 교활한 자들의 거짓 아우성만 있을 뿐이다.

성서는 정반대로 말한다. 성서는 어떤 초인적인 시험도 없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연약하게 하는 예견의 공포에 대하여 성서가 말하고 있는 다른 곳에서, 성서는 믿는 자들에게 말한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너희의 머리를 들라(눅 21:28).”

결과적으로 시험은 초인간적인 면을 갖고 있지 않다. 반면에, 환난이 가장 소름끼칠 때, 믿는 자는 머리만큼 더 크다. 머리만큼이다. 그는 진실로 환난 위로 들어 올리는 머리만큼 더 크다.

그리고 환난이 길이라면, 그때 믿는 자 역시 환난 위에 있다. 알다시피, 사람이 걷고 있는 길은 그의 머리 위로 가지 않지만, 사람이 길 위를 걷고 있을 때, 그는 자신의 발로 그 길을 밟고 지나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믿는 자는 초인적인 시험 앞에서 설설 가는 것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환난이 길이라는 생각 속에 순전한 기쁨이 있다. 고난당하는 자는 즉각적으로 아주 특별하게 과업이 무엇인지 안다. 그는 즉각적으로 모든 힘을 다해 출발할 수 있다.

어떤 의심도 길과 환난 사이에 슬그머니 끼어 들 수 없다. 왜냐하면 이 둘은 영원이 분리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환난이 길이라고 믿으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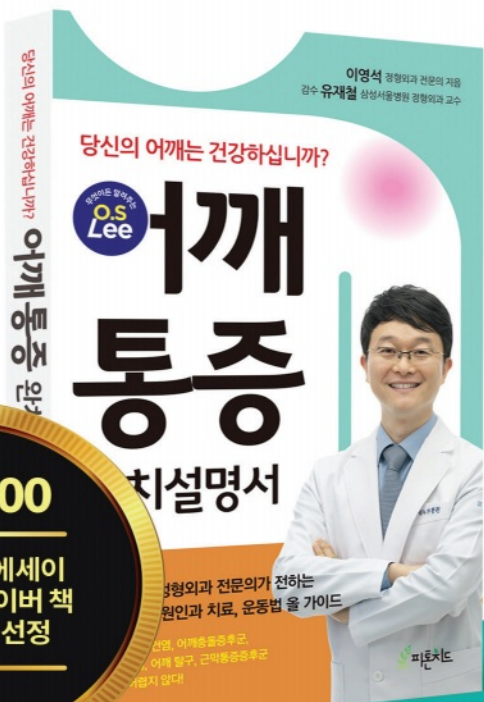
이창우 목사
(키에르케고어 〈스스로 판단하라〉,
〈자기 시험을 위하여〉 역자,
〈창조의 선물〉 저자)

은혜 한 장



통증없이 건강한 어깨로 100세 살기!

오십견·석회성건염·어깨충돌증후군·회전근개 파열·어깨 탈구·근막통증 증후군 완전 정복 어렵지 않다!



어깨통증 완치설명서

은평구 성능가병원 정형외과 대표원장 이영석 전문의가 전하는
어깨통증의 원인과 치료, 운동법 올 가이드

SAMSUNG 삼성서울병원 정형외과 유재철 교수 감수

YES24·교보문고·영풍문고·주요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판매 중!



성지순례 고대 역사를 이야기하는 사카라(1)

고대 이집트인들은 함족과 쉼족의 피가 섞인 주민이다. 그러다 보니 아프리카적 요소인 상형문자(히에로글리프)는 쉼족의 쉼기문자인 비상형 문자로 바뀌지 않은 채 3000년 이상 사용되었다.

고대 이집트어는 고왕국 시대의 고어(古語), 중왕국~신왕국 시대의 중기어(中期語), 신왕국~말기왕조 시대의 말기어 3가지로 분류된다. 신전의 문자나 칙령 등에는 신성문자(히에로글리프)를 사용했다. 히에로글리프를 사용하였던 고왕국 시대의 신관(神官)들은 히에로글리프의 간략서체인 신관문자(하이레텍)를 만들었다. 그 후 BC 7세기에는 도상성(圖像性)이 없는 속필문자(速筆文字)인 민중문자(데모틱)가 고안되어 상업 등에 이용되었다. 콥트어는 3세기 말 이집트어에서 생긴 뒤 새로운 문자 체계로 표현된 것을 말한다.

이집트는 주후 641년 이슬람교도에게 정복당한 후 아랍어를 사용했으며, 오늘 날은 아랍어의 이집트 방언을 사용하고 있다. 나일강을 중심으로 마을이 연합하고 상이집트와 하이집트에 국가가 생긴 것은 BC 3500년 무렵이라고 학자들은 추정을 한다. 그리스 계통인 프톨레마이우스 왕조 시대의 신관이면서 이집트의 역사학자인 마네토는 이집트 역사를 31 왕조로 구분하여 역사서를 저술하였다고 하는데, 지금은 전하지 않고 있다.

지금 나누는 고왕국, 중왕국, 신왕국의 구분은 마네토의 작품이다. 마네토의 기술에 의하면 BC 2700년 무렵 고왕국의 제3왕조는 이집트를 통일하여 멤피스에 수도를 정한다. 그리고 조세르 왕 시대에 국력이 신장 되어 최초의 석조 피라미드를 사카라(사카라)는 6km에 이르는 넓은 지역으로 피라미드 콤플렉스를 중

심으로 왕위 즉위 기념 축제를 위한 일종의 신전)에 건축한다. 그 규모는 동서 121m, 남북 109m, 높이 60m이다. 그 뒤의 왕들은 이것을 모방하여 피라미드로 왕의 무덤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제4왕조는 BC 2600년 무렵 스네프루 왕에 의해 시작되었고, 이 왕조는 남쪽으로 누비아, 동쪽으로 아시아, 서쪽으로는 리비아까지 나라를 확장했다. 스네프루 왕은 마이둠 피라미드·굴절 피라미드와 그 뒤 다수르의 저경사(低傾斜) 피라미드를 건축했다. 그의 아들 쿠푸왕은 기자에 대형 피라미드를 세웠다. 쿠푸 왕에 이어 카프레멘카우레 등의 왕들도 각각 피라미드를 건설했는데, 이들이 건설한 것이 기자의 피라미드들이다.

제4왕조의 신앙은 라(Ra: 太陽神), 즉 태양신을 섬기는 것이다. 그리고 왕가의 신앙이 동시에 국가의 신앙이 되었다. 또

한 이때 마이라를 만드는 기술도 생겼을 것으로 추정한다. 제5왕조는 BC 2450년 무렵 우세르카프 왕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우나스 왕의 피라미드에는 사후 왕의 안녕과 영생을 기원하는 피라미드 교서가 내부에 새겨져 있다. 제6왕조 페피 2세 시대는 왕권이 쇠약해져 지방 호족과 고관이 권력을 장악하다가 BC 2263년 무렵 몰락하였다. 제3~6왕조를 고왕국 시대 또는 피라미드 왕조 시대라고 한다.

제3왕조의 대표적 파라오는 조세르다. 이 이름의 뜻은 '신성한 자'를 뜻한다. 또한 조세르 왕은 신들의 조합보다 더욱 신성한 자로 불리기도 한다. 조세르 왕의 통치 시절에 이집트에는 임호테프라는 재상이 있었다. 임호테프의 의미는 '가득 차서 오는 자로서' '하 이집트 왕의 상서, 상 이집트 왕 바로 아래의 수석, 대왕

궁의 행정관, 세습 귀족, 헬리오폴리스의 제사장'은 조각가요, 돌 항아리 제작자'라고 기록된 초석이 발견되었다.

이것으로 보아 임호테프는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 사이의 경계를 모르는 고왕국 시대의, 천재 재상이며 불멸의 건축가라고 할 수 있다. 임호테프가 만든 조세르 파라오의 피라미드는 높이가 60m도 넘는 여섯 개의 거대한 계단으로 이루어져 있고, 장방형 공간(555m X 278m)의 한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다. 이 피라미드는 요철부가 있는 성곽으로 둘러싸여 있다. 이 성벽의 높이는 대략 10m 정도이다. 성곽은 사방 측면에 14개의 출입구가 있었으나 폐쇄되어 있으며, 지금은 남동쪽에 입구 하나만 열려 있다. 안으로 들어가면 계단식 피라미드가 보인다.

사람들은 흔히 피라미드라고 하면 사

각뿔 모양을 갖추었던 것으로 생각하는데, 처음부터 피라미드가 사각뿔 모양이 아니었음을 이것을 통하여 알 수가 있다. 아마 처음의 피라미드는 그냥 흙벽돌을 쌓아 올린 형태, 즉 마스터바로 만들어졌다. 그리고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계단식 피라미드가 생기게 되었고, 더욱 발달된 것이 기지에서 볼 수 있는 사각뿔 모양의 피라미드이다. 이 계단식 피라미드는 흙벽돌 피라미드에서 석조 피라미드로 넘어가는 시기를 알려주는 피라미드의 나침반이다. <계속>

◆ 김용규 목사
령전교회 중동 선교사
크리스찬 해피투어 중동 선교사
성지 가이드북 저자

신앙과가정

말씀을 듣는다는 것

Irvine의 어느 교회에 가서 말씀으로 섬길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LA에 갈 때에 예배드릴 시간이 되면 자주 가던 교회입니다. 그들의 예배는 늘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고 은혜를 제가 받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많지 않지만 그들의 예배는 언제나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예배드렸으면 좋겠다고 부러움을 갖기도 합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Staff들이나 찬양팀의 예배 자세는 눈에 불이 날 정도로 집중력이 있습니다. 찬양 인도하고서 뒤로 나가서 딴 짓 하지도 않으며, 예배 봉사자들도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면서 예배하는 모습이 너무나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예배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교회에 이번에는 말씀으로 섬기고 왔는데 제가 또 한 번 감탄한 것이 있었습니다. 제 설교가 끝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담임목사님이 강단에 올라와서 기도를 인도하는데 제가 전한 설교 말씀을 잘 받아서 그것을 놓고 하나, 하나 짚어 가면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전한 말씀을 적용하여 회개하고,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참 신선했습니다.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태도였습니다. 더욱 나를 놀라게



한 것은 며칠 지난 다음입니다. 그 목사님이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목사님, 저희 가족들과 함께 지난번 목사님이 전해준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일반적으로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그냥 잊어버립니다. 무슨 말씀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설교 한편 들은 것일 뿐일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그 날 말씀을 그 자리에서뿐만 아니라, 가족

들을 모아 놓고 다시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나누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이 분들은 말씀을 사모하고,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곰곰이 보고 적용하고 누리고 은혜로 받아먹었던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전한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되었기 때문일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말씀이 은혜가 많아서가 아니라, 그분들은 말씀을 순종해내려

고 애를 쓰는 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먹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목장 모임을 할 때에 말씀 나눔을 합니다. 그때에 각 목장에서는 주일에 전해진 말씀을 가지고 나누라고 권면합니다. 가끔은 제가 민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제가 전한 말씀이 무슨 은혜가 있다고 그러나 싫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해진 말씀을 가지고 나누라는 것은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공통분모가 형성되어 말씀을 나누기 쉽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에게 전해진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즉 말씀 받을 준비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어떤 분은 말씀에 많은 은혜를 받는다고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은혜가 안 된다고 투덜거립니다. 은혜도 불만도 결국 자신의 영적 상태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말씀은 살아 낼 때에 말씀이 됩니다. 그냥 설교로 듣고 흘리자 말고, 베퍼야 사람들처럼 그 말씀이 그러한가 뒤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아름다운교회 제공

이야기하늘나라

다리 이어주는 인생

1987년 스위스에 토니 루티만이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토니가 19살이 되어 학교를 막 졸업했을 때 예과 도르에 매우 큰 지진이 났는데 토니의 마음속에 갑자기 그 사람들을 도우려 떠나야 된다는 엄청난 부담감이 생겼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자신의 마음의 소리를 따르기로 결정한 토니는 모을 수 있는 대로 돈을 모아 무작정 예과도로로 떠났습니다.

현지에서 도착한 토니는 지진이 난 곳뿐 아니라 고립된 오지의 공동된 문제점은 다른 도시와의 연결로가 없거나 파괴되어 제때 보급 받지 못하고 교류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토니는 이런 지역들을 서로 연결시켜 주는 다리를 건설해 나가기 시작했고 예과도르를 떠난 뒤에도 다른 빈국들을 돌아다니며 다리를 건설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그가 중남미와 동남아의 오지들을 찾아다니면서 놓은 다리만 해도 3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가

다리를 놓아준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에게 고마워하며 큰 감사를 표합니다. 다리를 놓는 자재부터 모든 것을 공짜로 지원받아 마을의 발전에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빈국에 다리를 지어주겠다는 토니의 프로젝트는 처음에 지원받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칠 줄 모르는 그의 열정과 노력에 이제는 고정적으로 자재를 공급해주는 회사들이 엄청 많아졌다고 합니다. 토니가 놓아주는 다리는 마을과 마을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마음까지도 연결해주는 사랑의 역할까지 해내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아름답습니다. 하 나님과 이웃 사이에 다리가 되십시오.

주님! 주님을 전하는 귀한 다리로서 쓰임 받게 하소서!

나를 통해 여러 사람들이 좋은 관계를 맺도록 힘써십시오.

(김정환 큐티365)

한국도로공사 안전동화 시리즈 | 해와 달 편

위급한 순간의 생명을
안전띠

안전띠 미착용 시 사망률은 4배 이상입니다.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띠,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한국도로공사



음악을 한다는 것

음악을 한다는 것은 도(道)를 닦는 것과도 같은 일이다. 여기서 내가 말하는 음악은 넓게는 작곡을 포함하여 모든 연주를, 좁게는 피아노를 연주하는 것을 말한다. 도를 닦기 위해 산으로 들어가면 사부는 '도의 지름길'을 알려줄 법도 한데 그저 머슴살이만 죽도록 시킨다. 물 길어 오기 3년, 마당 쓸기 3년, 땀감 구해오기 3년, 경우에 따라 한 3년 정도 밥 짓기를 더 시키는 사부를 만나기도 하고 돌팔이 선생을 만나 얻는 것도 없이 1년 만에 속성 아닌 속성으로 하산을 하기도 한다.

속세를 떠나 도를 깨우치고, 도인이나 신선이 되어 보려고 산에 들어갔을 때의 각오야 오죽했을까마는 그 십여 년의 세월이 어디 그리 짧은 시간인가. 제자들 중에는 첫날 지켜야 할 수칙들을 알려주는 순간 그대로 발길을 돌리는 이도 있을 테고, 한 1년은 버텨보는 이도 있을 테고 말이다. 물 길어오는 제자들 중에도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일하는 이가 있는 반면 요령껏 눈가림으로 빈 물통만 덜렁거리며 도장 문턱을 들락거리는 이도 있을 것이다.



김준희

혹은 십여 년 동안 하라는 것을 빠짐없이 다 하기는 했지만 그저 일에만 매달리다 보니 자신이 처음 이곳에 왜 들어왔는지도 까맣게 잊어버린 채, 육체노동으로 몸만 튼실해졌을 뿐, 총기를 상실한 이도 있을 터이다. 그러나 그 중에는 분명 물 길는 재미를 깨닫는 이가 있다. 아름다운 오솔길, 신선하고 맑은 공기, 이름 모를 새들의 지저귀, 계절마다 바뀌는 숲 속의 오묘한 풍경. 그것이 곧 수련의 즐거움인 것을... 사부는 안다. 그들의 물 길어 오는 표정만 보아도, 사실은 그 머슴살이가 바로 도 닦는 과정인 것이다. 음악가(피아니스트)가 되는 길도 그와 비슷하다.

음악을 하는 것이 무슨 신선놀음이라고 생각하고 시작하면 큰 오산이다. 초보자부터 수련하고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 내기란 불가능하다. 때로는 걸음마를 배우듯이 매우 느리게, 한 손씩, 때로는 한 마디를 가지고 몇 시간 이상을 연습해야 한다. 손끝에는 굳은살이 박이며 주먹을 쥐면 피아니스트임을 나타내는 특정부위의 소근육이 우뚝해 보일 만큼 긴 세월이 필요하다. 물론 보통 사람들이 10년, 20년에 얻을 것을 짧은 시간에 성취하는 이들도 있으나 그들도 똑같은 시기를 거친다. 좀 더 빠르고 심오할 뿐...

피아노의 경우, 단지 한 음을 친다 해도 그 음을 누르는 각 손가락의 압력, 타건의 속도, 타건 시 닿는 손가락의 부위, 타건의 방향, 타건의 전동작과 후동작, 팔 무게의 활용여부 등에 따라 각기 다른 수만 가지의 소리를 낸다. 그러므로 손가락 관절 역시 섬세하게 조절되어야 하며 손 끝의 감각으로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피아노 치기는 소근육 운동인지라 어릴 때부터 훈련이 필요하고 그 훈련은 잠시의 휴지기 없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악보에 표기되어 있는 수많은 풍나물(?)들과 각종 지시어들. 이것을 실수 없이 완벽하게 연주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반복훈련-지구력과 체력 그리고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밀' 빠지지 않은 독에 차곡차곡 물을 채워가듯이 연습에 몰두하며 그 과정 자체를 뿌듯함과 즐거움으로 받아들이다면 그는 음악가가 될 충분한 자질이 있다고 보면 된다. 이러한 여정을 통해 피아노는 두려운 존재, 싸워야 하는 존재가 아닌, 상호 소통이 가능한 친밀한 존재가 되며 음악적 귀가 열리게 되는 것이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음악은 (눈보다) 귀로 하는 것이다. 청각장애인

이 된 이후에 쓴 베토벤의 곡들은 눈을 감아도 건반이 보이듯이, 귀가 닫혀도 소리가 들리는 단계에서 작곡되어진 것이다. 그는 그의 작품을 내면의 귀로 완전히 들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음악을 하는데 있어서 '볼 수 없다는 것'은 '들 수 없다는 것'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닐 만큼 예민한 음악적 귀는 필수이다. 왜냐하면 정말 중요한 것들은 악보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이다.

연주자는 진실로 그 음악에서 요구되는 이미지 톤이 무엇인지 예측, 상상할 수 있어야 하며 자신의 귀로 즉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음악에 알맞는 톤 컬러를 찾는다는 것은 마치 한 화가가 어떤 독특한 하늘의 빛깔을 표현하기 위해 수많은 파란 빛깔 중 그 하늘에 가장 적합한, 즉 꼭 마음에 드는 단 하나의 정교한 빛깔을 찾아내는 과정과도 같다.

'피아노라는 악기를 가지고 자신의 목소리인 양 노래하고 호흡하며 자신의 음악을 만드는 것. 이때 연주자의 타고난 것들이 빛을 발한다. 명민함, 순수함, 예민함, 감정의 풍부함과 표현력, 상상력, 창조력 등 연주자의 심성이나 성격이 연주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

지를 마치 보이는 것처럼 자유자재로 다루고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어느 시나리오 작가가 쓴 대사를 토씨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읽었다고 해서 우리가 그 연가자를 훌륭한 배우라고 칭찬하지 않듯이 음악 또한 연주자가 악보를 단지 정확히 치기만 했다고 해서 그를 좋은 연주자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무엇' 못지않게 '어떻게'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연주자의 표현 방식, 소리, 음악적 동작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그가 표현하고자 하는 음악과 어우러져 최대한 자연스러워야 한다.

끝으로, 연주자는 영혼의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노래에 스스로 감동할 수 있을 만큼 음악과 하나가 되어야 하며, 그 감동을 듣는 아에게 그대로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야 한다. 연주자와 듣는 이가 동시에 무아지경을 느끼는 순간이다.

아! 그러면 드디어 득음의 경지에 이른 것일까. 나는 그 이상의 세계가 있음을 안다. '진정한 음악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시작되기 때문이다. 음악은 본래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에게 속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음악을 한다는 것은 아주 행복한 일이다. 음악을 통해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더더욱 행복한 일이다. 그 찬양 중에 감지되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 행복감은 음악자체가 주는 그 어떤 화열과 감히 비교할 수 없다. 지상에서 천국을 맛본다고나 해야 할까. 우리에게 음악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 김준희

예원학교, 서울예고, 서울음대 졸업 후 도미하여 시러큐스 대학원에서 피아노 석사를, 피바디음악원에서 피아노와 오르간, 하프시코드로 석사 후 과정을 수료하였다. 2000년에 귀국하여 서울예고, 한국예술종합학교, 서울대학교 (교회음악 실기과정) 강사를 역임하였으며 온누리교회와 분당 할렐루야 교회에서 피아니스트와 오르가니스트로 사역하였다. 현재 백석 예술대학교 음악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며, 저서로는 『반주자를 위한 찬송가 즉흥연주곡집 1, 2, 3』, 『생생 피아노 반주법 -대화로 배우는 교회음악반주』가 있다.

작은 교회도 예배 기획팀을 만들자 2



우한벨

예배 봉사자에 대한 목망이 우선입니다.

하이테크를 다루는 사역을 할 때 우리는 일에 몰두한 나머지 유기적인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서의 소통에 소홀할 때가 있습니다. 단순히 정보의 전달과 요청, 그리고 해결이 찬양팀과 엔지니어간의 관계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면 결국 그 관계는 일 중심적으로 변질되고 관계가 무너져 서로 손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목회자와 예배 기획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많은 현장에서 목회자는 명령을 내리는 사람이고 음향 담당자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갑과 을의 관계처럼 된 것을 발견합니다. 이것은 소통을 오히려 방해하는 일이며 예배의 근본인 소통을 예배 담당자부터 못하게 하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소통과 협력을 해야 하는 찬양팀과 엔지니어 간 문제가 있을 때 목회자가 손 놓

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적이고 공동체에 유익한 방향으로 화합을 시키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줘야 합니다. 그것이 미디어팀을 포함한 예배 사역자들이 오랫동안 행복하게 사역할 수 있게 돕는 목양일 것입니다.

급하지 않기 때문에 본질을 같이 공부하자

작은 교회에서는 예배 기획팀을 만든다고 해서 당장 한 달 안에 예배를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만약 빠른 시일 내에 바꾸려고 노력한다면 그것은 목회자의 욕망이 작동한다는 반증이 될 수 있습니다.)

길게 보고 본질적인 교회와 예배에 대한 공부를 같이 하는 것이 어떻까요? 이 움직임이 작고 강하며 본질적인 교회를 만드는 첫 번째 협동 작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몇 가지 추천 드릴 만한 책으로 교회론에 관해서는 『새로운 교회가 온다』(마이클 프로스트, 앨런 허쉬, IVP), 『유기적 공동체』(조셉 마이어스, SFC), 『실천적 교회론』(은준관, 한울 출판사),

예배에 있어서는 『예배학』(로버트 E. 웨버, CLC), 『예배와 현대 문화』(김세광, 대한기독교서회), 미디어에 있어서는 『하이테크 예배』(퀀틴 솔즈, IVP)를 추천 드립니다. (다 보시면 좋겠지만 처음부터 무리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각 분야 중 한 권의 책을 택해서 목회자가 보고 요약한 자료를 나누거나, 팀원들이 각 장을 나눠 요약한 것으로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배 기획팀이 예배에 관련된 책만 읽으면 되는 것 아니냐고 하시겠지만, 교회론의 바탕에서 예배 신학이 세워졌기에 교회론을 공부하는 것이 예배의 이해를 깊고 넓게 하도록 도와줍니다.

큐시트도 다르게 만들자
중대형 교회에서 예배 시 사용하는 큐시트를 작성하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음향, 영상, 조명, 강단으로 담당자 별로 구분하고 순서와 시간, 내용을 표시한 것입니다. 분 단위 또는 30초로 단위를 나눠 시간을 지키도록 합니다. 마감 시간을 지키는 것에 강박이 있는데, 예배가 늦어지

면 다음 예배 준비 시간이 줄어들고 주창장의 차량이 엉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작은 교회에서는 그럴 염려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을 쪼개는 표시는 굳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보여주고 참여시키시기를 중점적으로 표시를 하면 됩니다. 순차적 중심의 큐시트가 아니라 의미와 목적 중심의 큐시트로 만드는 것입니다. 아마 예배 기획팀 회의에서 나온 중요한 의미와 협동 작업들을 간략하게 기술하면 좋을 것입니다. 새로운 팀원이 들어와도 큐시트만을 보고도 빨리 예배의 의미와 사역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예배 기획팀(미디어팀)을 만드는 것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작은 교회에서 예배 기획팀, 또는 미디어팀을 만드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작은 교회라서 큰 교회처럼 미디어 작업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부분부터 작게 감당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목회자가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명한 복음의 방향성



을 제시하고 거기에 맞는 예배 기획팀의 팀으로 작지만 튼튼하게 팀이 세워질 것 같습니다. 장기적인 로드맵을 제시한다면 같은 마

◆ 우한벨

하이테크 예배 신학 연구소 소장 skylight69@naver.com, YAMAHA MUSIC KOREA 음향 및 마케팅 담당, 밴드 악기 팀장과 교회 지원 사업부를 기획?개발하였으며 SOVICO 교회 음향 엔지니어 교육 프로그램 개발하여 교회 음향 지원에 관한 프로그램들이 업계에 만들어 지도록 촉진하였고 프로오디오 전문지 『SoundArt』, 『SOUND ON AIR』, 월간 『CHURCH MEDIA』에 교회 음향에 관한 부분을 정기적으로 기고하였다. 현재는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에서 수학한 후 본질적 교회 회복을 위한 접근 방법으로 하이테크 예배 신학 연구소를 설립하여 바른 예배 신학에 의한 미디어 사역을 전하고 있다.

나랑 가까워서 좋고
나를 잘 알아서 좋은
우리동네
좋은 병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e음"앱에서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를 확인하세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HEALTH ASSURANCE REVIEW & ACCREDITATION SERVICE

박시은·진태현 부부, 2023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국무총리표창

밀알복지재단은 배우 박시은-진태현 부부가 지난 9일 여의도 KBS를 신관에서 열린 ‘제12회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에서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

밀알복지재단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배우 박시은-진태현 부부는 국내외 아동결연 캠페인, 장애인식개선 콘텐츠 내레이션 재능기부, 장애아동 가정 지원 위한 자선 바자회 개최, 코로나19 위기 가정 후원 등 지난 수년간 펼쳐온 나눔 활동을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지난 8월에도 기부마라톤으로 장애아동 치료비를 후원한 박시은-진태현 부부는 각각 시청각장애인 권리증진을 위



배우 박시은-진태현 부부가 여의도 KBS를 신관에서 열린 ‘제12회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에서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했다. ©밀알복지재단

한 ‘헬렌켈러 캠페인’ 참여, 지속적으로 장애아동을 지원하는 ‘기부라이팅(마라톤) 행사 주최 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

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로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박시은-진태현 부부는 작년 누적 기부금 1억 원을 돌파하며 밀알복지재단 고액 후원자 모임 ‘캠페인 클럽’ 7호로 위촉돼 지속적인 후원 활동의 공로를 인정받기도 했다.

박시은-진태현 부부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큰 상을 받아 죄송한 마음”이라며 “힘든 일이 많은 요즘인데 저희 부부가 조금이라도 따뜻한 소식을 드린 것 같아 기쁘고, 앞으로 배려하고 나누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더 좋은 일로 계속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을 밝혔다.

밀알복지재단 정형석 상임대표는 “오랜 시간 동안 기부와 봉사로 소외된 이웃들을 돕는 일에 앞장서 온 박시은-진태현 홍보대사님의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앞으로도 박시은-진태현 홍보대사님의 선한 영향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밀알복지재단도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로 12번째를 맞는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은 보건복지부·KBS·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공동 주최하는 행사로 평소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한 이들과 기관을 발굴해 시상하고 있다.

최승연 기자

제이어스, 7년만에 정규 4집 앨범 발매

이사야 60장 1절 말씀 주제

제이어스가 7년 만에 그들의 정규앨범 4집을 발매했다. ‘ARISE, Shine’이라는 타이틀의 이번 앨범은 이사야 60장 1절의 말씀을 기반으로 한다. 앨범에는 주제말씀에 대한 메시지도 함께 들어있다.

제이어스는 “지금 이 시간에도 다음 세대들은 교회를 떠나고 있고, 세상은 점점 악화되지만 가는 가운데, 이 아들이 온 땅을 덮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택하신 백성들을 통해 어둠을 빛으로 비추실 것이라는 확증을 가지고 앨범을 제작했다”며 “일어나 그 빛 비추라, 온 세상을

향해 그 빛을 비추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으로 우리의 노래와 메시지를 전하려 한다”고 했다. 앨범 수록곡으로는 ‘빛의 사자들이여’(찬 502장), ‘Keep on Fighting’,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육신 되어’, ‘아버지의 사랑’, ‘정직한 예배’, ‘LOVE LETTER’, ‘일어나 그 빛 비추라 (title)’, ‘성령의 바람’, ‘주의 사랑으로’, ‘Do you Love me?’, ‘Celebrate the Light’ 등과 1개의 메시지가 포함됐다.

이상진 기자



레위지파, 2024 청소년 캠프 내년 2월에 개최

레위지파미니스트리가 2024년 겨울 청소년 캠프를 내년 2월에 개최한다. 이사야 60장 1절 말씀을 기반으로 진행되는 이번 캠프는 2024년 2월 15일부터 17일까지 열린다. 레위지파는 “2024 겨울, 청소년 캠프를

개최한다. ‘악하고 음란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청소년이 일어날 것을 선포한다”고 했다.



이상진 기자

방송 편성표 ※ 편성표 일정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시간	CTS 기독교TV	Good TV	CGN TV	CBS TV	Cchannel
오전	5:00	00 CTS 새벽예배-이찬수 목사(분당우리교회) 40 사복음서 50 신앙예세이	40 할렐루스토리 50 조건희 목사의 찬양과 나눔	00 생명의 삶 20 [말씀] 지형은 목사(성락성결교회)	00 TV 설교/할렐루야교회 김승욱 목사:아고보서를 통해 배우는 성숙 : 6.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 30 TV 설교/은혜광성교회 박재신 목사	00 성지가 좋다 - 국내편(91회) 30 복음강단 - 포항중앙교회 손병렬 목사
	6:00	00 새벽을 말씀과 함께-이경은 목사(순복음진주초대교회) 30 새벽을 말씀과 함께	00 365 새벽기도 생방송 2부 30 한국교회와 함께 큐티를 보다 40 GOODTV 오늘의 기도 50 비전설교 시애틀형제교회 권준 목사	00 은누리교회 새벽기도회 40 [말씀] 안광복 목사(상당교회)	10 TV 설교/신촌성결교회 박노훈 목사	00 명성교회 새벽기도회 40 선교는 지금(2회) - 에버그린교회 김학필 목사
	7:00	00 CTS 뉴스 20 생명의 말씀-김서택 목사(대구동부교회) 50 생명의 말씀-정의호 목사(용인기쁨의교회)	20 말씀의 센터 춘천사랑의교회 윤대영 목사 50 말씀의 센터 소명중앙교회 김대성 목사	20 하용주 목사의 마가복음 강해	00 TV 설교/김양재 목사의 우리들말씀 50 TV 설교/소망교회 김경진 목사	30 배진기 목사의 생수의 강 40 김윤희 박사의 성경예스스 신약(1회) 50 노변담화(901회)
	8:00	20 신앙예세이 30 CTS 두란노 성경교실-송태근 목사의 강해설교	20 세상을 깨우는 말씀 훈민복음 50 매일 주와 함께	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0 [말씀] 최병락 목사(강남중앙침례교회)	30 TV 설교/[신일의 말씀] 신일교회 이기용 목사	00 말씀의 창 - 성광교회 유관재 목사 30 비전메시지 - 새빛교회 김용일 목사
	9:00	00 내가 매일 기쁘게 50 할렐루스토리	50 낮은 곳으로 올리는 회향의 종소리	00 [말씀] 강준민 목사(새생명비전교회) 40 크만추	10 TV 설교/[한사랑 말씀] 한사랑교회 황성수 목사: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법	00 성지가 좋다(404회) - 레바논 베가게국 바알벡 신전 30 정서영의 포토에세이(4회) 40 다시보는 성지가 좋다
	10:00	00 장경동 목사의 잘 살아보세 30 지식인 미래를 세우다	00 말씀의 센터 인천제일교회 이재일 목사 30 말씀의 센터 에버그린교회 김학필 목사	20 [말씀] 황성은 목사(창동염광교회)	00 TV 설교/꿈의 강단	00 (오직주님) 명성의 워십
오후	11:00	00 백세인생 20 7000마라톤 50 [생방송] CTS 뉴스	00 명사들의 명강 30 비전설교 베이직교회 조정민 목사	00 나침반 바이블 - 조병호 목사 40 저스트 텐 미닛 (위러브) 50 기도하면 달라집니다	00 TV 설교/[생중계]오직예수 이영훈 목사	00 성지가 좋다 - 국내편(91회) 30 C채널 매거진 굿데이(126회) 50 성찬의 소리 - 성찬교회 오원호 목사
	12:00	30 수영로의 시간-이규현 목사	00 말씀의 센터 백송교회 이순희 목사 30 말씀의 센터 하늘광교회 신용대 목사	10 바이블 프로젝트 <구약> 20 [말씀] 김형준 목사(동안교회)	00 TV 설교/무학교회 윤동일 목사 30 TV 설교/순복음대학원대학교 한별 총장:[비상] 감사를 재발견하라	20 비전메시지 - 포도원교회 김민훈 목사 50 김학필 목사의 믿음의 사림들(36회)
	13:00	20 오정현 목사의 비전목상 3분 미라클 30 CTS 두란노 성경교실-송태근 목사의 강해설교	00 말씀의 센터 임마누엘교회 전담양 목사 30 다규 더 로드 50 할렐루	00 어린이 공동체성경읽기 고고 바이블 20 [말씀] 황인철 목사(홀리튼장로교회)	00 TV 설교/영광교회 윤보환 감독 30 TV 설교/광림의 말씀 김정석 목사:다시금 쓰여져야 할 거룩한 역사	00 힐링토크 회복(657회) - 배우겸 감독 이태영 50 김윤희 박사의 성경예스스 구약
	14:00	00 [생방송] 콜링캣 50 CTS 특집다큐	00 GOODTV 진리의 시간 백석대학교 장종현 총장 50 낮은 곳으로 올리는 회향의 종소리	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0 떠나보면 알게되는 <여행의 이유>	20 TV 설교/임석순 목사의 주일 강단:이 시대를 믿음과 감사로	00 THE 깊이 금강민 신앙, 물결던 이야기 성지편(4회) 40 다시보는 성지가 좋다
	15:00	40 7000마라톤	00 생방송 기적을 이루는 기도 달라다큐	00 [말씀] 류용렬 목사(와신톤중앙장로교회) 40 생명의 삶	10 하나님을 기쁘시게 7004	00 선교는 지금(2회) - 에버그린교회 김학필 목사 50 정서영의 포토에세이
	16:00	10 신앙예세이 20 주성민 목사의 찬양의 기도 30 생명의 말씀-장경덕 목사(분당가나안교회)	00 비전설교 가나안교회 장경덕 목사 30 말씀의 센터 순복음참아름다운교회 안병찬 목사	00 어린이 공동체성경읽기 고고 바이블 20 [권퍼런스] 예수님과과의 대화 50 [말씀] 박성근 목사(남가주새누리교회)	10 주만찬 30 TV 설교/인천제일교회 이재일 목사	00 내 삶의 행복(77회) 50 김윤희 박사의 성경예스스
저녁	17:00	00 생명의 말씀-전태식 목사(순복음서울진주초대교회) 50 빛으로 소금으로	00 말씀의 센터 생명나무교회 손명숙 목사 30 말씀의 센터 오명어교회 권영구 목사	30 [말씀] 최경욱 목사(또감사선교회)	00 TV 설교/분당우리교회 이찬수 목사 30 TV 설교/남서울중앙교회 피종진 목사	00 스페셜 힐링토크 회복(115회) - 아나문서 김경화 50 비전메시지 - 수원은혜교회 황유석 목사
	18:00	00 생명의 말씀-양대식 목사(진주성남교회) 30 신앙예세이 40 백세인생	00 행복플러스 55 더 메시지	10 레디온 50 [말씀] 한기채 목사(중앙성결교회)	00 TV 설교/오룡교회 김은호 목사 30 TV 설교/은누리비전교회 김동국 목사	30 복음강단 - 양광교회 지용수 목사
	19:00	00 지식인 미래를 세우다 30 CTS 특선다큐	00 말씀의 센터 우리들교회 김양재 목사	30 신약의 세계로 오십시오	00 TV 설교/새애원 교회 소강석 목사 50 CBS 교회소식	00 비전메시지 - 전주산교회 김진영 목사 30 복음강단 - 청주서남교회 장승권 목사
	20:00	20 생명의 말씀-김정민 목사(금란교회)	00 명사들의 명강 30 비전설교 해성교회 정명호 목사	10 바이블 프로젝트 <구약> 20 고함교회 리턴즈, 믿음원정대 4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00 TV 설교/사랑의 말씀(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 50 잘 믿고 잘 사는 법	00 비전메시지 - 강남비전교회 한재욱 목사 40 비전메시지 - The Life 지구촌교회 김민환 목사
	21:00	00 CTS 뉴스 40 조셉 프린스 목사의 뉴크리에이션	00 세상을 깨우는 말씀 훈민복음 30 리바이츠 헤리티지 40 할렐루스토리 50 GOODTV 뉴스	00 소망교회 주일예배 50 15분 기독교 역사	00 TV 설교/산정현 강단(산정현교회)김관선 목사 30 TV 설교/강남중앙교회 장찬영 목사:하나님을 욕하고 축으라	10 다시보는 성지가 좋다 30 삶의 씨앗이 되는 소리 Cseed(씨드)(65회)
	22:00	10 내가 매일 기쁘게	10 스캇브래너목사의 자유로의 여정 40 말씀의 센터 소망교회 김경진 목사	10 저스트 텐 미닛 (위러브) 20 이미징 그레이스	00 TV 설교/대연성결교회 임석웅 목사:악령이 떠나는 악상 30 TV 설교/주님의교회 김화수 목사	00 예루살렘 데이트라인(397회) 20 소문난 성경교실(171회) 50 김윤희 박사의 성경예스스 구약(4회)
저녁	23:00	00 CTS 두란노 성경교실-송태근 목사의 강해설교 30 장경동 목사의 잘 살아보세	10 GOODTV 특별강중	00 켄넬 프랭클린의 부흥 30 생명의 삶 50 바이블 프로젝트 <구약>	00 CBS 금요일아침예배/CBS금요일아침예배:성경인물 시리즈 119 59 이름 목사의 성경매접기:로마서 11장 1~16절 로마서 11장 맥접기(2)	00 만나 U(4회)
	24:00	00 콜링캣 50 하나님의 숨결	00 이석 목사의 믿음으로 사는 삶	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0 2023 회복축제 <영혼의 나침반>	40 TV 설교/[말씀의 힘] 광석교회 김동찬 목사	00 오정현 목사의 온전한 은혜로 10 마음으로 말해요 공감창고(103회)
	1:00	10 지식인 미래를 세우다 40 CTS 특선다큐	00 세상을 보는 창 오색오감 30 말씀의 센터 새로운교회 한홍 목사	00 [말씀] 백금산 목사(예수가족교회) 40 [말씀] 정갑진 목사(예수향남교회)	10 TV 설교/민장기 목사의 그림설교	00 서재의 재발견 시즌2
	2:00	40 백세인생	00 명설교 수영로교회 정필도 목사 30 말씀의 센터 주내원교회 김남국 목사	20 [말씀] 김형익 목사(벤살롱교회)	00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00 선교는 지금(2회) - 에버그린교회 김학필 목사 50 정서영의 포토에세이
	3:00	00 장경동 목사의 잘 살아보세 30 Let's talk in English	00 GOODTV 다큐스페셜	00 [Global Sermon] David Platt's Secret Church 30 [말씀] 임재영 목사(서부성결교회)	00 새롭게 하소서	00 (오직주님) 명성의 워십
	4:00	00 클래식 생명의 말씀-박조준 목사 20 오늘의 양식 30 TV새벽예배	00 새벽을 깨우는 기도 30 새벽을 깨우는 말씀 인천제2교회 이건영 목사 55 365 새벽기도 생방송 1부	10 [말씀] 마크 최 목사(뉴저지은누리교회)	00 TV 설교/땅끝까지 복음을(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 30 TV 설교/가나안교회 박정현 목사	00 다시보는 성지가 좋다(72회) 20 C채널 명설교 다시 복음으로 -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



세상을 바꾸는 금융

**'아이들이 책을 읽고 뛰어노는 모습이
저에게 감동이고 큰 행복이죠'**

전북 고창 책마을 해리 이대건 촌장 (52세)

오랫동안 출판업을 하면서
제가 살던 고향에 책마을을 짓는 것이 꿈이었어요

마침 중주부님이 세운 초등학교가 사라질 거라는 소식에
고민 없이 고향에 내려가 도서관을 짓기 시작했죠

사실 이 모든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마을 주민들이 함께해 주셨고
고맙다며 간식을 챙겨 주거나 책을 기증해 주셨고
일손이 되어 힘을 더해주시기도 하셨어요

저와 마을 사람들의 희망이 모여 만들어진 이곳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을 보는 게 늘 감동이고 큰 행복입니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작은 희망들을 KB가 응원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희망부자
그 세번째 이야기 ☺

To BOOK continued

Korea Better
KB금융그룹

KB 작은도서관

KB금융그룹은 모든 아이들이 독서와 함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2008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 108곳의 지역에 KB작은도서관을
조성하였고 2023년까지 전국 8곳에 새로운 도서관을 조성해갑니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KB금융그룹이 함께 응원합니다

***b KB금융그룹**